

新入生 價値觀 調查研究

高明奎

目 次

| | |
|-----------------|-------------|
| I. 序 論 | 3. 調查內容 |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II. 結 果 解 釋 |
| 2. 理論의 背景 | IV. 結 論 |
| II. 研 究 方 法 | 1. 要 約 |
| 1. 資料와 方法 | 3. 提 言 |
| 2. 調查의 實施와 處理 | 3. 參 考 文 獻 |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解放以後 우리 나라는 많은 社會的·政治的 變動을 겪어왔다. 8·15解放, 6·25動亂, 4·19 學生義舉, 5·16革命等 많은 激動을 겪어오는 동안 東洋의 傳統的 保守的인 思考方式에서 갑자기 밀려온 西歐文化를 우리 民族은 消化시키기에 벅찬 감이 없지 않아 많았다. 이러한 동안 우리 民族의 價値意識은 變化되어 왔고, 이러한 價値意識의 變遷過程을 研究하기 위한 試圖도 社會學者 哲學者 心理學者 教育學者 等 많은 分野에서 이루어 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結果가 學校社會 地域社會 나아가 國家社會 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社會에는 不正과 不義와 不條理가 完全히 除去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價値基準과 國民倫理가 確立되지 못하고 있다. 農村地域에는 아직도 守舊的이고 不合理한 一面이 있는가 하면, 都市地域 一部에는 盲目的으로 外來風潮를 模倣하여 奢侈와 浪費를 일삼는 等 頹廢的인 傾向이 있지 않는가? 새로운 國民道義의 再建은 「옛 것이라 하여 덮어놓고 버리고 새 것이라 하여 盲目的으로 取하는 式」이 아니라, 옛 것이라도 우리 겨레 固有 美風良俗은 이를 이어받아 새 時代에 알맞게 發展시키고, 새 것이라도 合理的이고 生産的인 것만을 가려서 우리의 實情에 알맞도록 消化함으로써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調和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¹⁾

文化에 앞서 文明은 極度로 發達했고, 精神世界를 追求하는 觀念보다 物質世界를 渴望하는

1) 문교부, 전국대학생봉사연합회, 전국대학생연합봉사활동용, 1973, P. 15.

現代社會에 있어서 I. Kant는 「모든 것은 手段이 되어야 하지만, 人間과 人格란은 언제나 目的의 되어야 한다」는 말이라든가, K. Jaspers가 「經濟·技術 같은 것은 隸屬的 價値지 絕對로 目的은 될 수 없다. 오히려 學問이나 文化는 그 自体가 變質的 價値지마는, 政治·經濟·機械·技術은 人間을 위한 隸屬的인 價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終局的으로는 根本的인 價値의 核心은 人格에 있다」²⁾ 라고 主張했듯이, 우리의 價値觀은 經濟·物質 第一主義에서 精神·人間 第一主義로 摸索해 나가야 할 必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社會의 有意味한 集團인 靑年들의 價値觀, 特히 앞으로 大學에서 四年동안 알차게 배우고 社會의 各 分野에서 指導者 및 準指導者로서 從事할 新入生들의 價値意識과 生活上의 指標가 될 價値觀을 調査分析함으로써 學生指導相談, 職業指導, 其他 教育的·心理的·社會的 問題와 關聯된 學生理解를 위한 基礎資料로 삼으려는 것은 勿論, 그에 對한 取長補短을 하고 그들의 價値觀을 바람직한 向方으로 定立시켜 보려는 데에 本 研究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理論的 背景

價値觀에 關한 調査研究는 哲學·社會學·教育學·心理學 等 여러 分野에서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研究가 이루어졌고, 學者에 따라 價値觀의 調査·研究方法이 다르듯이 價値觀에 對한 定義와 그 特徵도 亦是 다른 見解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몇가지 境遇를 살펴보자.

Ralph H. Turner와 Lewis M. Killian 兩氏는 價値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A Value is any category of objects that are felt to have worth, that ought to be protected and promoted rather than treated with indifference. Objects of value can range from tangible things to broad ideas and their related activities.」³⁾

다시 말하면 價値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對象으로서, 이에 對해서는 無關心한 態度를 表하지 않고 오히려 이 對象이 保護 增進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價値의 對象에는 觸할 수 있는 事物은 勿論, 넓은 理念 및 그에 關聯된 諸活動까지도 包含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一社會에서는 小麥粉의 食品보다는 米穀의 食品을 값있게 생각하고, 專制主義보다는 自由主義를 守護하려고 한다. 이와같이 選擇可能한 多數의 關心對象中에서 어느 特定한 것에 嗜好를 表하는 態度 및 觀念을 價値觀이라고 定義하였다. 價値觀의 이와같은 廣義의 解釋은, 자칫하면 些少한 嗜好 選擇의 行爲 그 自体를 모두 價値觀이라고 誤解할 憂慮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價値觀의 定義를 Robin M. Williams Jr. 의 價値理論을 適用해서 若干 限定시

2) 學生生活研究, 4號,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0, P. 21. 再引用

3) Ralph H. Turner and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57, P. 332. 再引用, 洪承稷, 「韓國大學生の 價値觀」, Vol. IV. No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3) P. 56.

될 必要를 느낀다.

Robin M. Williams Jr.에 依하면 價値는 다음 네 가지 特徵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1) 價値는 概念的 要素로 構成된다. 다시 말하면 價値는 單純한 感覺·感情·反射·慾求等과 같은 直接的인 個人的 體驗自体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體驗을 資料로 해서 抽象化된 概念인 것이다.

(2) 價値는 情意的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 即 價値는 現實的으로 또는 潛在的으로 情意를 發動케 하는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3) 價値는 行動의 具體的인 諸目標는 아니다. 行動의 諸目標를 選定하는데 必要한 基準인 것이다.

(4) 價値는 所重한 것이며, 一般의 깊은 關心의 對象인 것이다.

鄭範謨氏에 依하면 價値觀을 여러가지 人間問題에 關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關한 一般的인 생각 또는 概念이라고 定義하고 있다.⁵⁾ 人間은 그의 生活에서 數없이 많은 場面을 對하고 複雜한 狀況에 處하게 된다. 이러한 한 場面, 한 狀況에서, 그는 여러가지 方向, 여러가지 方法으로 行動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例컨대, 大學入試에 떨어지고 나서 運命을 나무라고, 父母를 나무라고, 學校를 나무랄 수도 있고, 失望 끝에 放浪의 길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으며, 二次校에 다시 志望하는 수도 있고, 一年을 기다려 그래도 一流校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準備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한 場面에 處하여 여러가지 行動의 可能性 속에서 하나의 方向으로 行動이 決定되어 나오는 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다. 그 中에는 勿論 客觀的인 要因들이 있고, 이러한 客觀的인 事實때문에 最終行動이 크게 決定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또 하나의 重要한 原因들의 側面은 心理的인 또는 主觀的인 原因들이다. 이 속에는 그 사람의 知能·能力·技術·知識등의 要因들도 있지만, 그 中에서 重要한 것이 價値 내지 價値觀인 것이다.

氏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價値 내지 價値觀이 그 사람의 行動을 決定함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한 役割을 하는가를 다음 몇가지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⁶⁾

첫째, 價値觀은 그 사람의 動機와 抱負를 크게 決定한다. 즉 무엇을 願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둘째, 價値觀의 如何는 우리의 知覺과 解釋을 크게 左右한다. 즉 事物과 場面과 狀況을 보고 느끼고 解釋하는 한 見地를 形成하게 된다.

4) Robin M. Williams Jr., "Value Orientations in American Society",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ya A. Knopf Co., 1952, PP. 372~442. 再引用, 洪承稷, "韓國大學生の 價値觀", Vol. IV, No. 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3) PP. 56~57.

5) 鄭範謨, 價値觀과 教育, 서울:培英社, 1972, PP. 17~21.

6) 鄭範謨, 前掲書. PP. 18~21.

세째, 價値觀의 如何는 우리가 人生 어디에서 그 滿足과 意義를 얻느냐는 問題에 直結되어 있다.

네째, 價値와 價値觀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評價의 基準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價値觀 如何는 한 사람의 行動 내지 行爲에서 極히 重要的 役割을 하는 것이며, 價値觀의 動搖는 곧 그 사람의 動機와 抱負, 知覺과 解釋, 滿足과 意義 그리고 評價基準 自体의 搖動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것들이 稀微하거나 흔들흔들하거나 감광질광 할 때에는 그의 生活 自体가 또한 稀微하고 흔들흔들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價値 또는 價値觀은 世代나 時代 또는 社會變動에 따라 變遷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되어가고 있다. 人間의 行動은 大體로 社會에서 所重히 여긴다고 생각되는 價値를 中心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겠고, 또한 그 社會에서는 언제나 健全하다고 보여지는 價値觀의 定立이 必然的으로 要請되는 바이다.

II 研究 方法

1. 資料와 方法

本 調査에서 使用된 方法은 質問紙法(Questionnaire Method)으로 類層無選標集(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依해서 73學年度 新入生 總 330名中 280名(84.9%)을 標集하였으며, 處理는 百分率(%) 統計的 方法에 依해 處理되었고, 要因別 分析에 있어서는 全体別·學部別로 重要的 要因만을 分析하였다.

標準對象構成內容을 學部別·學科別로 區分하면, 다음 <表1> 과 같다.

<表 1> 學部 및 學科別로 본 標本集團의 構成 (73. 3. 10. 현재)

| 學 部 別 | 區分 | | 新 入 生 數 | 被 調 查 者 數 | % |
|---------|---|------------|---------|-----------|------|
| | 科別 | | | | |
| 法 文 學 部 | 經 國 觀 文 英 光 數 教 體 教 美 教 家 教 | 營 | 15 | 11 | 87.7 |
| | | 文 | 15 | 12 | |
| | | 光 | 20 | 18 | |
| | | 教 | 20 | 16 | |
| | | 教 | 30 | 26 | |
| | | 教 | 30 | 29 | |
| | | 教 | 30 | 27 | |
| | | 教 | 15 | 14 | |
| | | 計 | 175 | 153 | |
| | 農 學 部 | 園 畜 畜 獸 | 農 | 20 | |
| 芸 | | | 15 | 12 | |
| 產 | | | 20 | 14 | |
| 醫 | | | 20 | 17 | |
| 計 | | 75 | 57 | | |
| 水 產 學 部 | 漁 撈 製 造 增 殖 | 漁 | 30 | 28 | 85.0 |
| | | 製 | 20 | 16 | |
| | | 增 | 30 | 26 | |
| | 計 | 80 | 70 | | |
| 總 | 計 | 330 | 280 | 84.9 | |

2. 調查實施 및 處理

實施：1973年 3月 10日 ~30日

場所：大講堂 및 講義室

資料處理：1973年 8月 1日~12月 25日

3. 調 查 內 容

本 調 查 의 內 容 領 域 은 다 음 과 같 은 領 域 에 서 다 루 었 다.

A. 人 生 觀

- (1) 人間生活에 對한 態度
- (2) 人生의 目標에 對한 態度
- (3) 幸福에 對한 態度
- (4) 不安에 對한 態度

B. 大 學 觀

- (1) 大學의 性格에 對한 態度
- (2) 教授에 對한 態度
- (3) 大學生活中 不滿點
- (4) 休息 및 休講에 對한 態度

C. 職 業 觀

- (1) 大學卒業後의 計劃에 對한 態度
- (2) 將來 憧憬하는 職業
- (3) 自己의 職業選擇에 對한 態度
- (4) 女性의 職業進出에 對한 態度

D. 家 政 觀

- (1) 學生의 將來에 對한 父母의 所願
- (2) 子女教訓에 對한 態度
- (3) 重要한 意思決定에 對한 態度
- (4) 男尊女卑에 對한 態度
- (5) 子女數에 對한 態度

(6) 祭祀에 對한 態度

E. 異性 및 結婚觀

- (1) 異性交際의 有無
- (2) 異性交際의 必要性에 對한 態度
- (3) 異性交際의 理由
- (4)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
- (5)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
- (6) 結婚相對者의 選擇權의 所在
- (7) 配偶者의 學歷

F. 宗 教 觀

- (1) 宗教의 有無
- (2) 宗教的 教養 및 信仰에 對한 態度

以上 6個 領域을 中心으로 하여 27個의 問項을 提示하였다.

Ⅲ 結 果 解 釋

A. 人 生 觀

1) 人間生活에 對한 態度

高等學校를 卒業하여 大學에 들어온 學生들이 人間生活을 어떻게 보며, 또 自己自身이 어떻게 人間生活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의 人間生活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質問하였다. 다음 <表A-1> 이 그 應答結果이다.

<表A-1> 人間 生活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의미있는 생존경쟁의 장이다 | 58.8 | 52.6 | 58.6 | 58.0 |
| 즐거운 삶이다 | 9.8 | 8.8 | 11.4 | 10.0 |
| 꿈입없는 고해의 연속이다 | 20.9 | 26.3 | 22.9 | 22.5 |
|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본다 | 8.5 | 10.5 | 2.9 | 7.5 |
| 기 타 | 0.7 | | | 0.4 |
| 무 응 답 | 1.3 | 1.8 | 4.3 | 2.1 |
| N | 153 | 57 | 70 | 280 |

※ 모든 項目에 속한 숫자는 %임. N: 事例數임. 法: 法文學部. 農: 農學部. 水: 水産學部임.

〈表A-1〉에 依하면 우리 人間生活을 한마디로 表現한 學生을 全体的으로 보면 「意味있는 生存競爭의 場이다」가 58.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꿈없는 苦海의 連續이다」가 22.5%, 그리고 「즐거운 삶이다」가 10.0%의 順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意味있는 生存競爭의 場」·「즐거운 삶」이라고 樂觀的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은 全体的 68.0%로 7割이 되고, 이를 完全히 뒤엎은 「꿈없는 苦海의 連續」·「주어진 人生이니까 살아본다」는 人生을 悲觀的 否定的으로 보는 學生은 30%로 그 數가 3分之1 가량이다. 希望과 期待를 갖고 生活해야 할 青年期의 新入生으로서 社會에 對한 經驗도 없이 人生을 苦海라든지 주어진 人生이니까 살아본다는 態度는 積極的 肯定的인 人生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指導가 必要하리라 느껴진다.

學部別 差異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

2) 人生의 目標에 對한 態度

사람에 따라 欲求와 希望이 다르듯이, 그 이루어 보고져 하는 目標 亦是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람이 所重히 여기고 到達하려는 目標가 價値라면, 이 目標가 무엇인가를 밝혀봄으로써 價値는 究明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人間이 生活目標는 近視的으로도 考察할 수도 있고, 또 遠視的으로도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는 무엇입니까」라는 質問을 通해서 學生들의 日常生活의 關心方向을 把握하려는 遠視的인 接近法을 使用했는데, 그 應答結果는 〈表A-2〉와 같다.

〈표A-2〉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자신 사업 | 7.2 | 7.0 | 8.6 | 7.5 |
| 학문적 성공 | 7.2 | 7.0 | 4.3 | 6.4 |
| 지도자 입신출세 | 5.2 | 7.0 | 5.7 | 5.7 |
| 완전한 인격완성 | 47.7 | 40.4 | 24.3 | 40.4 |
| 행복한 가정생활·결혼생활 | 18.3 | 17.5 | 35.7 | 22.5 |
| 좋은 직업 | 4.6 | 12.3 | 11.4 | 7.9 |
| 국가민족의 향상발전 | 7.8 | 8.8 | 7.1 | 7.9 |
| 기 타 | 0.7 | | 1.4 | 0.7 |
| 무 응 답 | 1.3 | | 1.4 | 1.1 |
| N | 153 | 57 | 70 | 280 |

〈表A-2〉에 依하면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에 對하여 「完全한 人格完成」이 40.4%로 제일 많고, 다음이 「幸福한 家庭生活·結婚生活」이 22.5%를 보이는데, 이 두 項目이 顯著한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다. 反面에 「國家民族의 向上發展」과 「좋은 職業」 및 「慈善

事業」 등은 8% 程度로 낮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洪承稷氏에 依하면 韓國學生이 막연히 「完全한 人格養成」을 至大의 目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에 對한 考察에서 「子女敎訓」에 關한 質問에 대한 應答과 「韓國指導者 性格」에 關한 質問에 대한 應答에 關聯시켜 分析한 것을 보면, 韓國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性格의 第一 要件인 「正直·公正」을 「完全한 人格의 養成」으로 看做할 수 있다면, 그리고 第二 要件인 「果斷性」을 子女敎訓의 第一 重要한 것으로 列擧된 「獨立精神·強한 信念」과 相通하는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면, 學生들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至大의 目的으로서 列擧한 「完全한 人格養成」 「國家民族의 發展」 「指導者·立身出世」는 自身들이 國家民族의 指導者가 되고 싶다는 表現에 가까우며, 또 父母로서 子女에게 가르치고 싶은 敎訓으로서 列擧한 「獨立精神·強한 信念」 「完全한 人格의 所有者」⁸⁾는 自己 子女들이 國家·民族의 指導者가 되기를 願한다는 表現에 가깝다는 所見을 펴려하고 있다. 新入生들도 正녕 이 範疇에서 離脫되지 않으리라. 氏는 이어 國家民族의 指導者가 韓國에는 切實히 要求되는 것은 事實이나, 萬人이 權力만을 좋아한다면 누가 善良한 市民의 役割을 맡아야 한단 말인가 하고 反問한다. 先進國에서는 이와같은 質問을 하면 極히 具體적이고 現實的인 應答이 나오는 것이 普通이라는 點에서 先進國과 後進國의 差異를 엿볼 수 있다고 하며, 韓國學生도 보다 現實的인 生活目標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具體的인 方途를 배우는 態度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다시금 強調하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完全한 人格完成」이란 項目에 對해서는 法文學部 學生(47.7%)들의 反應이 제일 높고, 다음이 農學部 學生(40.4%)들이다. 「幸福한 家庭生活」은 水産學部 學生(35.7%)들이 越等히 높은데, 이는 豫備考査 實施 以後 漸增的으로 陸地部 學生들이 發展途上國의 水産業 展望이 밝은데서 그 만큼 志望率이 높음을 意味함과 同時에 故鄉을 등진데서 알뜰한 家庭生活를 그리워 하는 學生이 많음을 意味하는 바, 이것이 또한 全體의 反應比率에 크게 影響을 주었다고 본다.

3) 幸福에 對한 態度

社會에서 尊重되는 價値는 社會成員 各者가 同一한 強度의 態度로 그것에 對하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사람들은 社會에서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것을 成就했을 때는 幸福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普通인 것이다. 新入生들은 果然 어떠한 境遇에 幸福感을 느끼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장 幸福感을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하고 물어본 즉 <表A-3>과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7) 洪承稷,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前掲書, P. 91.

8) 本 조사에서도 이 두 項目이 獨立精神·強한 信念 40%, 完全한 人格養成 30%로 가장 두드러진 反應이다.

〈표A-3〉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 50.3 | 57.9 | 40.0 | 49.3 |
| 학교생활이 원만할 때 | 3.3 | 1.8 | 4.3 | 3.2 |
| 가정생활이 즐거울 때 | 23.5 | 21.1 | 24.3 | 23.2 |
|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 17.6 | 12.3 | 20.0 | 17.1 |
| 자신이 출중하였을 때 | 3.3 | 3.5 | 8.6 | 4.6 |
| 무 응 답 | 2.0 | 3.5 | 2.9 | 2.5 |
| N | 153 | 57 | 70 | 280 |

〈表A-3〉에 依하면 幸福感을 느낄 때를 全体的으로 보면 「計劃이 實現되었을 때」가 49.3%로 가장 많고, 다음이 「家庭生活이 즐거울 때」가 23.2%, 그리고 「異性·親舊와의 關係가 圓滿할 때」가 17.1%의 順으로 나타났다.

「計劃」의 內容이 解明됨이 없이는 「計劃이 實現되었을 때」는 무엇을 意味하는지 보다 詳細한 解釋은 困難하다. 그러나 學生들로 하여금 計劃의 內容을 分明히 把握하게 하고, 그것의 實現方途를 提示해 주는 것이 必要함을 本研究는 示唆하고 있다. 다음에 學生들은 아직도 父母의 保護下에 있기 때문에 家庭關係를 良好하게 하는 能動的인 役割은 하지 못하지만, 23.2%의 學生이 「家庭生活이 즐거울 때」 幸福을 느낀다고 應答한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이는 學生들이 家庭不和를 때때로 父母 사이에서 體驗하는데서 오는 呼訴의 表現일 수도 있고, 또 傳統的으로 固守되어온 韓國 家族制度에 對한 執着的 態度的 表現일 수도 있고, 家庭을 떠난 新人生들이 새로운 大學生活의 適應困難에서 오는 父母에의 退嬰的 態度(Regressive Attitude)의 表現일 수도 있을 것이다.

外國大學生에게는 흔히 重視되는 「親舊·異性과의 交際」가 우리 大學生에게는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거나, 或은 如意치 않은 탓인지는 모르나 17%가 이 境遇를 즐거운 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關心의 領域이 社會的 經濟的 條件에 따라서 差別함을 알 수 있고, 또 尙高等學校에서 大學에 들어온 그들에게 앞으로 많은 適應問題에서 오는 心理的 不安 때문에 關心 밖의 것일 수도 있다.

學部別로 보면 「計劃이 實現되었을 때」의 項目에 農學部(57.9%), 法文學部(50.3%) 學生들의 反應이 높은 것 外에는 別다른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4) 不安에 對한 態度

사람은 所重히 여기는 것이 如意하게 實現되지 않을 때, 或은 그것이 危脅을 받을 때 不安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가 所重히 여기는 것이 價値라고 規定한다면, 不安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把握함으로써 價値는 究明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당신이 가장 근심하고 不安

感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應答을 求한 바, <表A-4> 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표A-4> 가장 근심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

| 구 분 | 항 목 | 法 | 農 | 水 | 全 體 |
|----------------|-----|------|------|------|------|
|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 | 20.9 | 10.5 | 17.1 | 17.9 |
| 학업 문제 | | 11.1 | 7.0 | 4.3 | 8.6 |
| 가정 문제 | | 13.1 | 15.8 | 12.9 | 13.6 |
| 친구·이성문제 | | 7.8 | 10.5 | 15.7 | 10.4 |
| 결혼 문제 | | 2.0 | 1.8 | 1.4 | 1.8 |
| 전쟁 문제 | | 2.0 | 3.5 | - | 1.8 |
| 장래문제(취직문제) | | 21.6 | 36.8 | 28.6 | 26.4 |
| 진과 문제 | | 1.3 | 7.0 | 1.4 | 2.5 |
| 병역 문제 | | 5.2 | - | 1.4 | 3.2 |
| 경제적인 문제 | | 6.5 | 7.0 | 11.4 | 7.9 |
| 기 타 | | 0.7 | 1.8 | - | 0.7 |
| 무 응 답 | | 7.8 | - | 5.7 | 5.7 |
| N | | 153 | 57 | 70 | 280 |

<表A-4> 에 依하면 「將來問題」(就職問題)가 26.4%로 제일 많고, 다음이 「國家의 政治的·社會的 問題」로 17.9%, 그리고 「家庭問題」·「親舊·異性問題」가 各各 13.6%, 10.4%의 順으로 나타났다.

學校를 다니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不透明한 新入生으로서는 「將來問題」를 第一 不安하게 생각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處身問題가 不安의 第一 原因 이고 보니, 「計劃의 實現」은 그것이 些少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學生들의 즐거움과 幸福을 招來할 것인가를 充分히 엿볼 수 있다.

특히 新入生들의 不幸한 面의 하나는 마냥 즐겁게 學業에 專心해야 할 處地에 있는 그들이 「國家의 政治的·社會的 問題」를 念慮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서 있다는 점이다.

家庭을 떠난데서 오는 不安感이 또한 새로운 大學生活의 生疏感에 더욱 促進되어 家庭이 그립고, 지금까지의 高等學校 時節의 安定된 交友關係가 무너지고 새로운 親舊·異性關係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時間이 걸리는 바, 여기에 不安과 근심을 느끼지 않을 者 또 없을 것이다.

學部別로 보면 「將來問題」에 對한 不安感은 農學部(36.8%)가 他 學部보다 높고, 「國家의 政治的·社會的 問題」에 對한 不安感은 보다 法文學部(20.9%)가 높다.

B. 大 學 觀

5) 大學의 性格

普通 一般人들은 大學의 性格에 對하여 學問을 研究하는 곳이라든가, 좋은 職業을 얻는 곳, 指導者를 養成하는 곳이라 여긴다. 이러한 假定下에 新入生들이 이러한 影響을 얼마나 받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學生이 생각하는 大學의 性格은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라고 質問한 바 <表B-5> 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표B-5> 大 學 의 성 격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교양을 쌓는 장소 | 34.6 | 45.6 | 28.6 | 35.4 |
| 학문을 연구하는 곳 | 34.0 | 22.8 | 35.7 | 32.1 |
|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곳 | 10.5 | 14.0 | 7.1 | 10.4 |
|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과정 | 7.2 | 3.5 | 12.9 | 7.9 |
|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 | 1.3 | - | - | 0.7 |
| 지도자를 양성하는 장소 | 9.2 | 8.8 | 5.7 | 8.2 |
| 기 타 | 0.7 | - | 1.4 | 0.7 |
| 부 응 답 | 2.0 | 5.3 | 8.6 | 4.3 |
| N | 153 | 57 | 70 | 280 |

<表B-5> 에 依하면 「教養을 쌓는 場所」 라고 생각하는 學生이 35.4%로 제일 많고, 다음 이 「學問을 研究하는 곳」 이 32.1%, 그리고 「親舊들과 좋은 人間關係를 맺는 곳」 이 10.4%의 順으로 나타났다.

大學의 方向이 漸次 大衆化됨에 따라 一般教養을 爲主로 志向하고 있고, 또 1年에서 2年으로 大學 教養課程이 延長되려는 趨勢를 勘案할 때, 學問의 深奧한 研究는 西歐에서와 같이 大學院 課程으로 옮겨져 가는 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社會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듯이, 大學은 「指導者를 養成」 하거나 「좋은 職場을 얻기 위한 準備過程」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學生은 8%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亦是 大學은 높은 教養을 쌓는 人生에서의 重要な 過程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大學의 性格을 「教養을 쌓는 場所」 란 項目에는 農學部(45.6%)가 가장 높고, 다음이 法文學部(34.6%)이다. 「學問을 研究하는 곳」 은 水產學部(35.7%), 法文學部(34.0%)가 높다.

6) 理想的인 教授

우리들은 一般的으로 훌륭한 教授란 研究를 많이 하는 教授, 講義를 잘 하는 教授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大學에 갓 들어온 新入生들은 어떠한 教授를 가장 尊敬하는가를 把握코져 「당신이 가장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教授는 어떤 像입니까」 하고 質問한 바, <表B-6> 과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表B-6> 에 依하면 가장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教授는 「學究的 指導力이 있는 教授」 로서 41.4%, 다음이 「對人關係가 좋은 教授」 로서 22.1%, 그리고 「學生들을 個人的으로 誠意껏 對

〈표B-6〉

理想的인 教授像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體 |
| 강의를 잘 하는 교수 | 4.6 | - | - | 2.5 |
| 대인관계가 좋은 교수 | 19.0 | 36.8 | 17.1 | 22.1 |
| 학구적 지도력이 있는 교수 | 45.1 | 38.6 | 35.7 | 41.4 |
| 연구활동에 충실한 교수 | 10.5 | 10.5 | 5.7 | 9.3 |
|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성의껏 대하여 주는 교수 | 15.7 | 14.0 | 32.9 | 19.6 |
| 성적평가를 엄격히 하는 교수 | 1.3 | - | 1.4 | 1.1 |
| 사회활동이 활발한 교수 | 1.3 | - | 7.1 | 2.5 |
| 무 응 답 | 2.6 | - | - | 1.4 |
| N | 153 | 57 | 70 | 280 |

하여 주는 教授」가 19.6%의 順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講義를 잘 하는 教授나 研究를 많이 하는 教授보다는, 오히려 學究的 指導力과 學生들과의 關係 또는 人間 關係가 좋은 教授를 더욱 理想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傾向이다. 그리고 理想的인 大學教授와 成績評價와는 아무런 關聯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러한 反應傾向을 全校生을 對象으로 한 調查結果와 比較해 보면,⁹⁾ 全校生들도 첫째 學究的 指導力이 있는 教授(33.7%), 둘째 學生들을 個人的으로 誠意껏 對하여 주는 教授(27.5%), 셋째 對人關係가 좋은 教授(18.6%)로서 그 順位와 反應의 強度는 다르나, 共通的인 關心事項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結果를 어떻게 解釋할까? 全體의 5分之2의 新入生이 「學究的 指導力이 있는 教授」에 對한 關心은 專攻分野에 있어서 深奧한 學問의 理論과 知識을 가르쳐 주고 그들을 知的으로 感化·說得시켜 줌으로서 自己의 專攻에 迫車를 加하여 주고, 人生의 밝은 길을 案内해 주는 學問과 指導力을 兼備한 教授像에 對한 表現일런지도 모른다.

「對人關係가 좋은 教授」와 「學生들을 個人的으로 誠意껏 對하여 주는 教授」들을 합치면 41.7%인데, 이는 새로운 大學生活에 올바른 適應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個人指導에 渴症을 느끼고 있는 바, 여기에 對한 指導教授의 親切한 相談·指導가 必要하리라 본다.

學部別로 보면 「對人關係가 좋은 教授」가 理想的인 教授로 보는 學生은 農學部(36.8%)가 높고, 「學究的 指導力이 있는 教授」에 關心은 法文學部(45.1%)가 높고, 「學生들을 個人的으로 誠意껏 對하여 주는 教授」는 水產學部(32.9%) 學生들이 越等히 關心을 보이고 있다. 學部에 따라 關心度가 다른 바, 달리한 指導方案이 摸索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여진다.

7) 大學生活에서 느끼는 不滿意

入學해서 몇 個月 되지 않은 新入生에게는 多少 無理겠으나, 現在 또는 앞으로 大學生活에서

9) 學生指導, 第二輯, 濟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P. 14.

느끼는 不滿을 알아보기 위하여 「大學生活에서 당신이 느끼는 가장 不滿點은 무엇입니까」 하고 質問했다. 그 應答結果가 <表 B-7> 이다.

<표 B-7> 大學 生活에서 느끼는 不滿點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좋은 시설이 없다 | 45.8 | 33.3 | 24.3 | 37.9 |
| 마음에 드는 강의가 없다 | 3.9 | 1.8 | 1.4 | 2.9 |
| 좋은 친구가 없다 | 5.9 | - | 7.1 | 5.0 |
| 휴강이 많다 | 2.6 | 3.5 | - | 2.1 |
|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다 | 5.9 | 3.5 | 10.0 | 6.4 |
| 선후배간에 유대강화가 없다 | 3.9 | 5.3 | 8.6 | 5.4 |
| 캠퍼스가 시와 서귀포로 분산되어 있다 | 16.3 | 47.4 | 40.0 | 28.6 |
| 기 타 | 1.3 | 1.8 | 2.9 | 1.8 |
| 무 응 답 | 14.4 | 3.5 | 5.7 | 10.0 |
| N | 153 | 57 | 70 | 280 |

<表 B-7> 에 依하면 大學生活에서 가장 不滿點을 갖는 것은 「좋은 施設이 없다」가 37.9 %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캠퍼스가 市와 西歸浦로 분산되어 있다」가 28.6%로서 이 두 項目이 가장 두드러진 不滿으로 들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現在 學生들이 충분히 利用할 수 있는 施設의 不足을 말하고 있고, 또 現在 大學 캠퍼스가 市와 西歸浦로 분산되어 있어서 學校行政 및 教授能率의 極大化에 阻害는 勿論 學生側의 學業 및 經濟面에 있어서 負擔이 큼을 말하고 있지만, 現在 政府當局의 積極인 支援下에 濟大生 아니 全 濟州道民의 輿望인 캠퍼스 統合一이 實現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對한 適切한 解決策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본다.

學部別로 보면 「좋은 施設이 없다」는 不滿點은 越等히 法文學部(45.8%)가 높고, 다음이 農學部(33.3%)이다. 「캠퍼스 分散」에 對한 不滿은 2學年이 되면 農學部와 水産學部に 屬한 學生들이 西歸浦에서 通學하지 않으면 안 될 處地를 미리 豫想해서인지 前者가 47.4%, 後者가 40%로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8) 休講이나 휴식시간에 對한 태도

新入生들이 앞으로 學校生活을 해나가는 中에 休講이나 休息時間을 갖게 될 境遇, 그 餘暇時間을 어떻게 活用하려고 하는가에 對해서 質問해 본 應答結果가 <表 B-8> 이다.

<表 B-8> 에 依하면 休講이나 休息時間에 「休息을 取한다」와 「圖書館에 간다」가 各各 39.6%와 39.3%로 거의 같은 比率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圖書館에 간다」는 學生은 法文學部(41.8%), 農學部(40.4%)가 높고, 「休

〈표B-8〉

휴감이나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잡담을 한다 | 7.2 | 5.3 | 4.3 | 6.1 |
| 도서관에 간다 | 41.8 | 40.4 | 32.9 | 39.3 |
| 외출한다 | 4.6 | 8.8 | 4.3 | 5.4 |
| 휴식을 취한다 | 42.5 | 36.8 | 35.7 | 39.6 |
| 기 타 | 0.7 | 1.8 | 1.4 | 1.1 |
| 무 응 답 | 3.3 | 7.0 | 21.4 | 8.6 |
| N | 153 | 57 | 70 | 280 |

息을 取한다」는 學生은 法文學部(42.5%)가 他 學部보다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특히 冊을 읽는다는 것은 自己의 良識을 쌓는 길이고, 自己가 卒業後 어떤 職業에서 應用해야 할 專門的 知識을 獲得하는 수단이거늘, 全體의 40%가 아니라 100%가 休講이나 休息時間을 좀 더 有用하고 바람직하게 使用할 줄 아는 態度가 길러질 수 있는 具體的인 指導方案이 必要하다.

Gruber와 Beatty에 依하면¹⁰⁾ 人間生活을 形成하는 三大要素로서 人間關係·市民活動·娛樂 등 세가지를 들고, 이들 모든 活動이 “餘暇善用”(Worthy use of leisure)이란 말의 範疇에 들어간다고 하고, 美國의 어떤 學校에서는 各 學生이 세 方面에 各己 하나씩의 재주를 갖도록 勸獎한다고 한다. 즉, 그 세 方面이란 머리를 쓰는 재주, 손을 使用하는 재주, 발로 하는 재주로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는 知的 재주로서 知識과 鑑賞力을 갖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藝術·工作을 包含하는 손을 使用하는 技術을 갖는 일이며,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個人 및 團體競技를 包含하는 身體的 發達에 關係된 어떤 技能을 갖는 일이다.

이 세가지의 고른 發達을 期하려는 것이어서 매우 興味롭다. 우리들에게 參考되리라 믿어 적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固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活動選定の 案內로서 利用할 것이고, 學生들에게는 이 中에서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必要에 맞고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을 擇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 職 業 觀

9) 大學卒業後의 計劃

人間은 將來의 계획을 세우고 그 計劃을 達成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가운데 健實한 生活을 할

10) Frederick C. Gruber, and Thomas B. Beatty., Secondary School Activit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4), PP. 63~73. 再引用, 李 洙 德·朴 秉 熙, 學 級 會 活 動 (學生活動; 現代教育實踐叢書 9.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9) PP. 74~75.

수 있다고 본다. 이런 假定下에 新入生들이 果然 將來 계획을 세우고 大學에 入學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의 大學卒業後의 計劃은 무엇입니까」 하고 質問한 應答結果가 <表 C-9> 이다.

<표 C-9> 대학 졸업후의 計劃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결 혼 | 3.3 | 1.8 | 2.9 | 2.9 |
| 취 직 | 47.7 | 61.4 | 61.4 | 53.9 |
| 대학원 진학 | 33.3 | 26.3 | 18.6 | 28.2 |
| 외 국 유 학 | 9.8 | 3.5 | 14.3 | 9.6 |
| 기 타 | 1.3 | | 1.4 | 1.1 |
| 무 응 답 | 4.6 | 7.0 | 1.4 | 3.9 |
| N | 153 | 57 | 70 | 280 |

<表 C-9> 에 依하면 全体的으로 「就職」이 53.9%로 過半數이고, 다음이 「大學院 進學」이 28.2%이다. 이 두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大學卒業後의 계획임을 알 수 있고, 「外國留學」은 9.6%에 不過하다.

이러한 現象은 地方의 特殊性·經濟性에 비추어 卒業後에 就職하려는 學生이 많음은 當然한 結果이다. 그리고 約 30% 程度는 繼續하여 學究的인 生活을 하려는 學生이 있음을 생각할 때 여기에 對한 對策도 있어야 하리라 본다.

學部別로 보면 農·水産學部の 學生(各已 61.4%)들이 大學卒業後 「就職」하려는 學生이 越 等히 많고, 法文學部 學生(33.3%)들은 「大學院 進學」을 하려는 傾向이 보다 많다.

10) 將來 憧憬하는 職業

新入生들은 將來 어떠한 職業을 憧憬하고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 「당신은 將來 어떠한 職業에 從事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은 즉, <表 C-10>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表 C-10>에 依하면 學生들이 將來 從事하고 싶은 職業에 對하여 全体的으로 보면, 가장 憧憬의 對象이 되는 職業은 「教師」 19.3%, 다음 「學者」(教授) 13.2%, 「事業家」(經營主) 12.1%, 「航海士」(海運業) 11.1%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反應傾向은 昨年度 新入生 實態 調査와 比較해 보면¹¹⁾ 그 反應의 強度는 다르나 그 範圍는 같다.

反面, 新入生들이 憧憬의 對象이 되지 않은 職業으로서는 가장 낮은 反應을 보인 「銀行家」 「計理士」 「外交官」 「運動選手」 등이 各各 1.1%, 다음이 「法官」 「醫師」 「言論人」 「農業」 등등이 各各 2.1 내지 2.5%의 順으로 나타났다.

11) 高明奎, 新入生 實態調査, (學生指導, 第2輯, 濟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PP. 120~121.

〈표C-10〉

장래 종사하고 싶은 직업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體 |
| 정 치 인 | 5.2 | 1.8 | — | 3.2 |
| 행 정 관(공무원) | 5.9 | 5.3 | 5.7 | 5.7 |
| 법 관 | 3.3 | — | 2.9 | 2.5 |
| 사 업 가(경영주) | 7.8 | 21.1 | 14.3 | 12.1 |
| 은 행 가 | 1.3 | — | 1.4 | 1.1 |
| 학 자(교수) | 18.3 | 8.8 | 5.7 | 13.2 |
| 교 사 | 26.1 | 19.3 | 4.3 | 19.3 |
| 의 사(의료원) | 2.0 | 3.5 | 1.4 | 2.1 |
| 기 술 자 | 1.3 | — | 10.0 | 3.2 |
| 계 리 사 | 2.0 | — | — | 1.1 |
| 축 산(농장주) | 2.0 | 19.3 | 1.4 | 5.4 |
| 인 론 인(기자) | 4.6 | — | — | 2.5 |
| 농 업 | — | 10.5 | — | 2.1 |
| 의 교 관 | 2.6 | — | — | 1.4 |
| 항 해 사(해운업) | 1.3 | 1.8 | 40.0 | 11.1 |
| 사회사업가 | 3.3 | 1.8 | 4.3 | 3.2 |
| 예 술 가 | 10.5 | 5.3 | 1.4 | 7.1 |
| 운 동 선 수 | 3.3 | — | 1.4 | 1.1 |
| 기 타 | — | 1.8 | — | 0.7 |
| 무 응 답 | 0.7 | — | 4.3 | 1.4 |
| N | 153 | 57 | 70 | 280 |

學部別로 보면 法文學部의 境遇, 학생들이 憧憬하는 職業의 順位는 亦是「教師」26.1%, 「學者」18.3%로 全體의 順位와 같고, 「藝術家」가 10.5%이다. 農學部의 학생들은 「事業家」21.1%, 「教師」「畜産」各各 19.3%, 「農業」10.5%의 順位이고. 水産學部는 「航海士」40% 「事業家」14.3%, 「技術者」1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學部의 特性에 따른 職種을 憧憬하는 傾向을 如實히 찾아 볼 수 있다.

職種別로 보면 法文學部(17種)의 학생들이 農學部(12種), 水産學部(13種)의 학생들 보다 多樣한 職種을 憧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1) 이러한 職業을 擇한 理由

職業을 擇하게 되는 때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 것이다. 社會的 地位가 높다든가, 能力과 適性에 맞는다면, 報酬를 많이 받는다 等等이다. 이러한 假定下에 新入生들에게 「이러한 職業을 擇하게 된 理由는 무엇입니까」하고 質問했던 바, 〈表C-11〉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표C-11〉 이러한 직업을 택하게 된 理由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므로 | 47.1 | 38.6 | 40.0 | 43.6 |
|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 19.6 | 24.6 | 28.6 | 22.9 |
| 미래가 안정된 직업이므로 | 17.6 | 15.8 | 7.1 | 14.6 |
|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이므로 | 0.7 | 5.3 | 12.9 | 4.3 |
|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므로 | 15.0 | 12.3 | 8.6 | 12.9 |
| 무 응 답 | — | 3.5 | 2.9 | 1.4 |
| N | 153 | 57 | 70 | 280 |

〈表C-11〉에 依하면 〈問項 10〉에서 自己가 願한 職業을 擇한 理由로서는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이므로」가 43.6%로 으뜸이고, 다음이 「獨創性을 發揮할 수 있는 職業이므로」가 22.9%, 「未來가 安定된 職業이므로」 14.6%, 그리고 「他人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職業이므로」 12.9%의 順으로 나타났다.

學生(敎授)들은 知性敎育에 從事하고 있는 關係인지는 모르지만,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과 「獨創性을 發揮할 수 있는 職業」을 重視함으로써 非傳統적이고 個人主義적이고 理想主義적인 職業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韓國의 傳統과 現實을 보아서는 「安定된 未來를 내다 볼 수 있는 職業」 「他人에 도움을 줄 수 있는 職業」 등이 보다 많은 應答率을 얻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未來가 安定되고, 報酬가 많고, 他人에 도움되는 職業은 傳統的인 觀念으로 볼 때 이른바 「감투」에 該當되는 職業이기 때문이다. 韓國 社會에도 應答者들이 바라는 대로 個性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에 從事할 수 있을 때, 韓國도 近代化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全體的 約 15% 程度의 學生들은 不安한 歷史를 갖고 있는 韓國社會인 만큼 「未來가 安定된 職業」을 願하게 되는 것은 극히 現實적인 思考라 아니할 수 없고, 約 4% 程度의 學生들은 「報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職業」을 擇하고 있음은 新入生의 家庭環境의 貧困이 反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에는 法文學部 學生(47.1%)들이 他 學部보다 높은 傾向이고, 또한 敎育界에 投身하려는 學生들이 많아서인지 「未來가 安定된 職業」에서도 약간 높은 傾向을 볼 수 있다. 水產學部(28.6%)는 「獨創性을 發揮할 수 있는 職業」에서 보다 높은 傾向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 나라는 앞으로 水産業展望이 밝은데서 個人的 獨創性을 발휘할 충분한 餘地가 있는데서 나온 結果가 아닌가 본다. 바람직한 일이다.

12) 洪 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左同 韓國社會科學研究叢書 ⑩), 1971. PP. 141~143.

12) 女性の結婚後 職業進出에 대한 태도

韓國社會는 溫順하고 貞淑하고 조용한 女性만을 模範으로 생각하던 것이 傳統이었다. 이러한 假定下에 「女性の結婚後 職業進出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質問하였다. 이에 對한 應答의 分析結果가 다음 <表C-12>와 같다.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매우 좋다 | 7.2 | 1.8 | 5.7 | 5.7 |
| 좋다 | 38.6 | 40.4 | 35.7 | 38.2 |
| 그저 그렇다 | 29.4 | 28.1 | 21.4 | 27.1 |
| 나쁘다 | 19.6 | 26.3 | 30.0 | 23.6 |
| 매우 나쁘다 | 3.9 | 5.3 | 7.1 | 5.0 |
| 무응답 | 1.3 | — | — | 0.7 |
| N | 153 | 57 | 70 | 280 |

<表C-12>에 依하면 女性の 職業進出에 對하여 「좋다」가 38.2%로 으뜸이고, 그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7.1%, 그리고 「나쁘다」가 23.6%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면 「매우 좋다」 5.7%와 「좋다」 38.2%의 둘을 합한 全體의 43.9%의 學生들은 女性の 職業進出에 對해서 歡迎의 뜻을 表示하고 있으며,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의 둘을 합친 28.6%는 否定的의 뜻을 表하고, 27%는 肯定·否定도 하지 않는 傍觀的 態度를 지닌 學生이라 볼 수 있다.

韓國社會에서는 婦女子의 地位가 傳統적으로 낮다. 특히 이들의 家族集團內에서의 낮은 地位는 在家從夫, 媵家從夫, 亡夫從子라는 이른바 三從之義에도 잘 나타나 있다. 女子에게는 獨立된 意思表示나 行動은 許容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服從만이 強要되었고, 이르기 위해서는 溫順하고 貞淑하고 安穩한 性格의 女子가 훌륭하게 생각되었다.¹³⁾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都市에서 볼 수 있는 現代女性은 傳統의 婦女觀에 依해서 평가한다면 大端히 獨立적이고 活動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傳統의 女性은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學部別로 보면 法文學部에는 現代 教育을 받는 女學生들이 있어서 그래서인지, 「매우 좋다」(7.2%)와 「좋다」(38.6%) 둘을 합한 全體의 45.8%의 學生들은 他 學部 學生들 보다 女性の 職業進出에 對해서 好意的 反應을 表하고, 水産學部(나쁘다 30%, 매우 나쁘다 7.1%)의 學生(37.1%)들은 他 學部보다 消極的 態度를 보이고, 다음이 農學部 31.6%로 매우 흥미롭다. 즉 水産系·農學系 學生들은 女性の 社會的 進出을 꺼려하고 있으니 말이다.

韓國社會에서는 過去에 一般的으로 사람들이 잘 順從하는 것을 美德으로 알아왔다. 잘 順從

13) 崔在錫, 「韓國人的 社會的 性格」, 서울: 民潮社, 1935. 第一章 3節 婦女子의 地位 參照.

하는 性格의 所有者는 말없이 일하는 命令服從型의 人間이다. 더우기 傳統的으로 社會的 地位가 낮은 女性은 조용한 性格의 所有者이어야 했다. 이와같은 極端的인 過去의 傳統的 態度에 비추어 보면 어느 學部이고간에 過半數는 못되지만 4割 程度이거나 以上이 女性의 職業的 進出을 贊成하는 것은 人權尊重 및 自主性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民主的 思考方式의 要請에 符合되는 變遷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韓國의 經濟的 實情이 女性이 가만히 집안에 들어앉아 安逸한 生活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反映하고 있을 것이다. 아뭏든 男女 모두 맡은 바 責任과 任務를 充實히 履行할 때, 韓國의 近代化는 加速化 되리라 믿어 疑心치 않으리라.

D. 家 政 觀

13) 父母의 學生의 將來에 대한 所願

父母들은 普通 自己 子女로 하여금 將來 職業을 갖기를 願하거나, 老後에 經濟的 도움을 받고 倂려 하거나, 自己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達成시키려는 境遇가 非--非再하다. 이러한 데서 「父母님들은 學生의 將來에 對해서 어떠한 所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質問했던 바, <表D-13>과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표D-13> 부모님들의 학생의 장래에 대한 소원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결혼하면 그만이다 | 6.5 | — | 2.9 | 4.3 |
| 뚜렷한 職業을 갖게 해야겠다 | 50.3 | 50.9 | 51.4 | 50.7 |
| 외국유학을 시키겠다 | 5.2 | — | 4.3 | 3.9 |
| 경제적 도움을 바라야겠다 | 3.9 | 5.3 | 7.1 | 5.0 |
| 부모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룩하려고 한다 | 30.1 | 48.9 | 31.4 | 33.2 |
| 기 타 | 0.7 | — | 1.4 | 0.7 |
| 무 응 답 | 3.3 | — | 1.4 | 2.1 |
| N | 153 | 57 | 70 | 280 |

<表D-13>에 依하면 父母들이 생각하는 學生들의 將來 所願은 「뚜렷한 職業을 갖게 해야겠다」가 50.7%로 으뜸이고, 다음이 「父母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이룩하려고 한다」가 33.2%이다. 이 두개가 가장 두드러진 所願임을 알 수 있다.

韓國社會는 不安한 歷史를 지녀왔기 때문인지 半數學生들의 父母들은 將來에 學生들로 하여금 뚜렷한 職業을 갖기를 願하고 있다. 이는 貧寒한 農民들의 子제들이고 보면, 官吏는 尊貴하고 百姓은 卑賤하다는 思考方式이 韓國에는 自古로 強力히 支配하였고, 또 이러한 風土에서 쓰러린 生活를 해온 農民들인지라, 이러한 傳統에서 아직 크게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에 있어서는 李朝以來 韓國社會에 뿌리깊게 作用하여 온 官尊民卑의 態度가 아직도 殘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態度가 子女의 職業選擇에도 反映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職業의 選擇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的 職業的인 適合性(Vocational Fitness: ① 能力的 要因 ② 人性的 資質 ③ 身體的 條件 ④ 職業的 興味 ⑤ 家庭環境的 要因)을 考慮해서 거기에 一致된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助言指導하여야 할 것이다.¹⁴⁾ 이 職業的 適合性에 대한 理解와 職業에 對한 理解는 勿論, 兩者의 合理的이고 調和된 關聯性을 찾아서 그 統合을 이룰 수 있는 相談指導가 必要하다.

「父母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이룩하려고 한다」는 學生이 3分之1이나 되는데, 이는 父母가 自己의 失敗를 子女를 通해서 補償(Compensation)하려는 心理機制의 表現일런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種類의 補償行動은 자칫하면 子女들의 能力과 希望 및 興味를 度外視하기 쉬운 點에서, 子女들에게 커다란 心的 打擊을 주는 수가 흔히 있다.¹⁵⁾

學部別로 보면 「結婚하면 그만이다」가 法文學部에서는 6.5%로 나타나는데, 이는 女學生이 있는 탓인지 父母들이 생각하는 딸에 對한 希望은 幸福한 結婚生活에 目標을 두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뚜렷한 職業을 갖게 해야겠다」는 反應은 3個 學部 모두 50%로 가장 높은 反面, 「父母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이룩하려고 한다」는 反應은 農學部(43.9%)가 他 學部보다 훨씬 높은 것이 注目할만한 일이다.

14) 子女敎訓에 대한 태도

家庭에서 子女가 어떤 方法으로 養育되느냐에 따라서 子女의 性格이 달라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一家의 家風은 子女의 敎育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特히 父母가 子女에게 주는 敎訓은 으레히 一家의 家風이나, 或은 社會價值觀을 反映한다. 이런 意味에서 「당신이 만약 父母라면 子女에게 힘들여 가르칠 敎訓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여 물었던 바, 다음 <表D-14>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표D-14> 父母로서 子女에게 가르치고 싶은 敎훈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體 |
| 종교·도의敎育 | 3.3 | 5.3 | 1.4 | 3.2 |
| 원만한 대인관계 | 9.8 | 15.8 | 15.7 | 12.5 |
| 완전한 인격양성 | 32.0 | 26.3 | 25.7 | 29.3 |
| 질계·규칙 있는 생활 | 11.8 | 8.8 | 17.1 | 12.5 |
| 독립정신·강한 신념 | 39.9 | 42.1 | 38.6 | 40.0 |
| 무 응 답 | 3.3 | 1.8 | 1.4 | 2.5 |
| N | 153 | 57 | 70 | 280 |

14) 李榮德·鄭元植 ;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 敎學圖書株式會社, 1964, PP. 175~181.

15) 허버트·A·캐롤라카 저, 李南杓 譯, 精神衛生, 서울 : 載東文化社, 1960, P. 133.

〈表D-14〉에 依하면 新入生들의 子女教育觀을 보면 「獨立精神·強한 信念」이 40%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完全한 人格養成」은 29.3%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圓滿한 對人關係」·「節制·規則있는 生活」이 各各 12.5%이며, 第1 끝은 「宗教·道義教育」으로서 3%에 不 過하다.

이와같은 應答類型을 어떻게 解析해야 옳을까? 우리는 于先 David Riesman의 人格型을 參 考로 하여 위의 應答類型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吟味하고자 한다. Riesman은 人格型을 傳統 志向型(Traditional-directed), 內部志向型(Inner-directed), 他者志向型(Other-directed)으로 分類하고 이 3型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¹⁶⁾

첫째로 傳統志向型은 比較的 變化가 적은 安定된 傳統社會, 즉 傳統이 人間의 行動을 支配 하는 社會에서 볼 수 있는 人格型이다. 이 傳統志向의인 人間은 그의 文化的 影響을 매일같이 接觸하는 少數의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다. 그의 周邊에 있는 이 少數의 사람들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어떤 特定한 型의 人間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傳統이 是認하는 方向으로 行動하 라는 것이다. 文化的 傳統이 人間行動의 細部까지 統制하고, 親族關係에 있어서는 嚴格한 禮節이 強調된다. 農業技術의 改善등과 같은 새로운 問題의 解決에는 別다른 精力이 쓰이지 않는다. 儀式, 慣例, 宗教등에 더욱 神經을 쓰게 된다.

위의 傳統志向의 人格型에 비추어서 新入生들의 子女教育觀을 分析해 볼 때, 新入生들 中에는 確實히 傳統志向의인 學生도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完全한 人格養成」「宗教·道義教育」(後者에 對한 比率은 극히 낮기는 하나)面을 強調하고 있음은 Riesman의 傳統志向의 人格型과 一脈相通하는 바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新入生들의 態度를 內部志向의 人格型에 비추어서 考察해 보자.

「西洋史에 있어서 文藝復興 및 宗教改革과 더불어 發生했고 現在에 와서 消滅中에 있는 社會는 內部志向性이 行動의 適合性을 保障하는 主要한 樣式으로서 役割을 하는 社會型의 例이다.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는 個人的 移動性의 激增, 資本의 蓄積, 끊임없는 經濟擴張등의 現象을 볼 수 있다. 經濟擴張은 財貨 및 人的資源의 生産의 集中的 擴張 및 帝國主義, 植民地化, 搾取現象의 廣範한 擴大로 늘어난다.

이 社會가 賦與하는 많은 選擇의 自由는 (그리고 새로운 問題를 解決하는 데 必要한 보다 역 進取性) 社會의 所以로 嚴하고 自明한 傳統志向性이 없이도 生活해 나갈 수 있는 人間型에 依해서 處理된다. 이 人間型이 內部志向의 人間型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獨立精神·強한 信念」을 子女教育에 있어서 強調하는 新入生들은 農村을 떠나서 새로운 機會를 都市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 符合하는 性格, 즉 前述한 바 있는 文藝復興 및

16) David Riesman, et. al., The Lonely Crowd,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4,

PP. 40~41. 再引用,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82~84.

17) Ibid., PP. 30~31.,

宗教改革以後에 發生한 西歐社會에서 볼 수 있었던 獨立性과 進取性이 強한 性格을 重視하고 있는 印象을 준다. 事實上 韓國社會는 이제야 겨우 傳統에서 깨어나 自律的으로 近代化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時点에서 安逸하게 過去에 執着하고 「儀式·慣例·宗教등에 神經」을 쓰고 「完全한 人格養成」이라는 消極的 道義教育에만 置重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이라면, 新入生들의 子女教育觀은 韓國社會의 要請에 一致하는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한편, 美國과 같은 現代社會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他者志向도 찾아볼 수 있다. 現代社會는 時間에 쫓겨서 살기 때문에 節制規則 있는 生活이 要請되며, 또 經濟擴張時期에 重視되었던 獨立精神·鬭爭心·強한 信念 보다도 現代의 消費經濟社會에서는 高度로 分化되고 複雜한 組織에 依해서 生活하기 때문에 圓滿한 對人關係가 重視된다.¹⁸⁾ <表D-14>에서 보면 「圓滿한 對人關係」와 「節制·規則 있는 生活」에 應答한 學生은 各各 13% 가량이나 된다.

結論的으로 新入生들은 아직도 傳統志向的이고 內部志向的인 性格型이 混在하고 있는 實情이다.

學部別로 보면 「圓滿한 對人關係」는 農·水產學部 學生들이 法文學部 學生들 보다 約 6%를 더 重要視하는 傾向을 示顯하고 있는데, 이는 農·水產學部の 學生들은 2 志望으로 入學한 學生과 陸地部 學生들이 많은 바, 이는 地方에 比하여 現代化한 都市에서 生活해 온 他們인지라 社會가 現代化하면 할 수록 人間關係는 複雜化하는 同時에 對人關係가 日常生活에 重要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리라.

「完全한 人格의 所有者」를 子女의 教訓으로 對하는 態度는 法文學部가 他 學部보다 約 6%나 重要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獨立精神·強한 信念」은 農學部가 他 學部 보다 2~4%나 重要視하는 傾向이다.

15) 가정의 意思 決定權

韓國社會는 아직도 身分을 年令에 따라 決定하는 傾向이 있다. 年少者의 年長者에 對한 敬意의 表示는 儒敎의 五倫行爲의 하나로서 尊重된데서 由來한다. 그러나 現代社會는 너무나 複雜하고 또 그 機能이 分化되었기 때문에 傳統社會에서 年長者가 自然的인 指導性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와는 너무나 事情이 달라졌다. 年少者가 年長者보다 能力面에 있어서나 經驗面에 있어서 優越한 境遇가 허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당신은 家庭의 重要的 일은 누구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質問했던 바, <表D-15>와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表D-15>에 依하면 家庭의 重要的 일은 「家族이 모두 議論해서」가 65%로서 으뜸이고, 다음이 「父母協同」이 19.3%, 그리고 「父」가 8.6%의 順으로 나타났다.

18) William A. Scott, "Empirical Assessment of values and ideolo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June 1959), P. 304. 洪承稷, Ibid., P. 83.

<표 D-15> 家庭의 重要한 일은 누구에게 의하여 결정되나

| 항 목 | 구 분 | 구 분 |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부 | | 7.2 | 12.3 | 8.6 | 8.6 |
| 모 | | 4.6 | 8.8 | — | 4.3 |
| 부모 협동 | | 19.6 | 8.8 | 27.1 | 19.3 |
| 조 부 | | 2.0 | — | — | 1.1 |
| 조 모 | | — | — | — | — |
| 가족이 모두 의논해서 | | 65.4 | 70.2 | 60.0 | 65.0 |
| 기 타 | | — | — | 1.4 | 0.4 |
| 쿠 응 답 | | 5.9 | — | 2.9 | 3.9 |
| N | | 153 | 57 | 70 | 280 |

家庭의 重要한 일이 「家族이 모두 議論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65%라는 壓倒的인 比率은 종래 父母들의 一方的인 決定에 依하여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家族全體의 意思를 尊重해서 民主的인 解決方案을 摸索해야 한다는 方向으로 그 움직임을 보이며, 健全한 態度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現代社會의 重要한 特徵의 하나는 人間의 평가에 있어서 그의 歸屬的 身分, 年令, 性別보다도 그의 能力과 業績이 가장 重要한 基準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年令의 多少만을 가지고 自他的 身分을 評價한다는 것은 극히 前近代的인 思考의 結果라 하겠다.

이 말은 年少者가 年長者를 輕視해도 可하다는 말로 理解되어서는 안된다. 單純한 年令 보다는 能力과 業績이 사람 評價에 있어서 더 重要한 基準의 役割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다.¹⁹⁾

여기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아직도 新人生들 中에는 「父」·「母」·「父母協同」·「祖父」를 합치면, 33.3%에 達하는 學生들이 長幼有序觀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學部別로 보면 「家族이 모두 議論」해서는 農學部가 가장 重視하고, 다음이 法文學部이다. 「父母協同」은 水產學部가 越等히 높다.

16) 男尊女卑의 態度

어느 社會이고 男女의 社會的 地位는 同等하지가 않다. 大體로 보아서 女子의 地位가 男子의 그것보다 낮고 또 여러 面에서 女子가 差別을 받은 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普通 男尊女卑의 思想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에서도 形式的으로는 女子도 參政權이 賦與되어 있고 또 民主主義의 旗幟下에 男女同等의 思想이 高調되고 있기는 하나, 傳統的인 男尊女卑의 態度는 아직도 除去되지 못하고 있다. 男子爲主의 家父長的 權威主義가 社會生活에 크게 作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男尊女卑의 態度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子女가 아들이나 딸이냐는 勿論, 子

19) 洪 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129~130.

女の數에도 나타난다. 이와같은 男尊女卑의 態度에 關聯해서 于先 「당신이 딸만 셋을 가진 父母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던 바, 그 結果는 <表D-16> 과 같다.

<표D-16> 딸만 셋을 가진 父母라면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體 |
|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 | 19.0 | 29.8 | 24.3 | 22.5 |
| 요즈음은 딸이 더 좋다 | 0.7 | 1.8 | 1.4 | 1.1 |
|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으니깐 훌륭히 키운다 | 74.5 | 59.6 | 67.1 | 69.6 |
| 기 타 | 1.3 | — | 4.3 | 1.8 |
| 무 응 답 | 4.6 | 14.0 | 2.9 | 5.0 |
| N | 153 | 57 | 70 | 283 |

<表D-16> 에 依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으니깐 훌륭히 키운다」 가 69.6%로 首位를 차지하고, 다음이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 가 22.5%로 두번째의 順位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이 가장 두드러진 傾向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으니깐 훌륭히 키운다」 가 7割이 되는 것으로 보아, 新入生들의 大部分이 아들과 딸에 對한 比重은 同等하게 보고 있으며, 적어도 過去의 傳統的인 男尊女卑의 思想은 크게 弱化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人權尊重이라는 民主理念에 符合되는 思考로서, 健全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時間이 흐름에 따라 韓國女性도 男性 못지 않게 人權의 尊重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2割 以上の 學生들은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 는 應答을 보이고 있음은 男尊女卑의 思想을 지니고 있는 바, 아직도 保守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法文學部 學生(74.5%)들이 「아들이나 딸」을 같은 比重으로 보는 傾向이 제일 높고, 다음이 水産學部 學生(67.1%)들이다. 反面, 「아들」에 比重을 더 두는 學部는 「아들·딸」에 같은 比重을 두는 傾向이 적은 農學部 學生(29.8%)들이고, 다음이 水産學部(24.3%)임을 알 수 있다.

17) 理想的인 子女數

다음에는 이런 男尊女卑思想과 關聯해서 「당신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子女數는 몇입니까」 하고 물었던 바, 그 應答結果는 <表D-17> 과 같다.

<表D-17> 에 依하면 理想的인 子女數는 「二男一女」가 51.8%로 제일 높은 比率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一男一女」가 21.8%, 그리고 「二男二女」가 14.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理想的인 子女數는 二名 내지 四名으로서,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D-17>

알맞는子女數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여자 하나 | 1.3 | - | - | 0.7 |
| 남자 하나 | 0.7 | 1.8 | - | 0.7 |
| 남자 하나, 여자 하나 | 23.5 | 21.0 | 18.6 | 21.8 |
| 남자 둘, 여자 하나 | 53.6 | 52.6 | 47.1 | 51.8 |
| 여자 둘, 남자 하나 | 3.9 | 7.0 | 1.4 | 3.9 |
| 남자 둘, 여자 둘 | 9.8 | 8.8 | 28.6 | 14.3 |
| 그 이상 | 3.9 | 8.8 | 4.3 | 5.0 |
| 무 응 답 | 3.3 | - | - | 1.8 |
| N | 153 | 57 | 70 | 280 |

近代화된 國家일수록 적은 數의 子女를 願하는 趨勢가 壓倒의 傾向임을 勘案할 때, “적게 낳고 훌륭히 키우자”는 케치크레즈 밑에 敏感하게 世界的 趨勢에 適應하는 態度에 對하여 讚辭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農村의 婦女子는 男子 셋, 女子 둘을 理想的인 子女數로 생각하고 있고, 都市에서는 男子 둘, 女子 하나를 理想的인 子女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²⁰⁾

新入生の 境遇도 後者에 屬하는데, <表D-16> 과 比較해 보면 「아들·딸」에 同等한 比重을 두는 傾向이 높음에도, 여기에서는 아들에 더 比重을 두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女子보다는 男子를 重視하는 傳統的인 男尊女卑 思想이 뿌리 깊게 殘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二男一女」는 法文學部(53.6%)와 農學部(52.6%)가 他 學部보다 더 願하는 傾向이고, 水產學部(28.6%)는 他 學部 보다 「二男二女」를 越等히 願하는 傾向이다.

18) 제사에 對한 意見

祖上에 對한 奉祭祀는 傳統的으로 儒敎의 韓國家庭에 있어서는 一種의 宗教的 儀式과도 같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祖上崇拜의 思想은 近來에 와서는 儒敎의 影響이 漸次로 弱화됨에 따라 相當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런 뜻에서 「祭祀에 對한 당신의 意見은 어떠한하십니까」하고 물은 즉, 다음과 같은 <表D-18> 의 應答 結果를 얻었다.

<表D-18> 에 依하면 祖上에 對한 奉祭祀를 「祖上崇拜의 思想으로 家庭의 和睦上 必要하다」가 55.7%로 제일 높은 比率를 보이고, 다음이 「慣習上 傳統的인 因習으로 因해 어쩔 수 없다」가 18.6%로 둘째로 높다. 이것은 한편 이들을 합치면 74.3%의 大多數의 學生들이 祭祀를 贊成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그 贊成理由를 意味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것으로 보아서, 先祖崇拜思想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들 家庭에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127~128.

〈表D-18〉

제 사 에 대 한 의 견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조상숭배의 사상으로 가정의 화목상 필요하다 | 55.6 | 50.9 | 60.0 | 55.7 |
| 관습상 전통적인 인습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 18.3 | 21.1 | 17.1 | 18.6 |
| 비합리적이고 미신같으므로 지낼 필요가 없다 | 13.7 | 21.1 | 17.1 | 16.1 |
| 기 타 | 0.7 | 5.3 | 1.4 | 1.8 |
| 무 응 답 | 11.8 | 1.8 | 4.3 | 7.9 |
| N | 153 | 57 | 70 | 280 |

「非合理的이고迷信같으므로 지낼 필요가 없다」고 消極的 否定的 贊意를 보인 學生들도 16.1%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과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觀念에 傳統的인 因習과 現代的 西歐의인 思潮와의 葛藤의 片貌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다.

위의 結果에서 미루어 新人生들의 大多數가 奉祭祀에 贊意를 表하고 있음을 勘案할 때, 祭祀를 現時代에 맞게 是正해야 됨을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研究에 依하면²¹⁾ 全體 反對率 36%中에서 祭祀에 反對하는 支配的 理由는 「虛禮·虛飾」이 14%, 「經濟的 浪費」가 8%, 「非合理的 迷信」이 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생각은 오늘날 祭祀가 虛禮虛式에 빠져서 必要以上の 經費를 所要케 하고, 祭祀의 根本趣旨를 忘却하는 傾向이 있음을 意味하는 同時에 在來式 祭祀가 現代人의 生活感情에 符合되지 않은 面이 있음을 示唆한다. 現時代에 맞게 是正된 祭祀는 어떤 內容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究明할 수는 없겠지만, 必然코 祭祀節次의 簡素化를 意味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數千年 繼續해서 實施해 온 先祖崇拜行爲로서의 祭祀를 突然히 廢止할 理由가 없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大多數가 그것을 贊成하는 韓國의 現實에서는 보다 合理的 立場에서 祭祀를 再解釋하고 現代生活의 感情에 一致하는 方向으로 祭祀節次를 修正하는 것이 오늘날 要請되는 바다. 이런 뜻에서 家庭儀禮準則의 반포는 뜻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近代化의 立場에서 冷情히 祭祀行爲를 吟味하고 過去에 있어서와 같이 祖上崇拜가 ① 過去志向의 人間을 만들어 낸다거나, ② 親族主義를 中心으로 한 派閥을 造成케 한다거나, ③ 或은 空虛하게 過去의 先祖業績만을 자랑하는 등의 結果를 招來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覺醒해야 할 것이다.²²⁾

學部別로 보면 「祖上崇拜의 思想으로 家庭의 和睦上 必要하다」는 水產學部(60%)가 가장 높고, 다음으 法文學部(55.6%)이다. 「어쩔 수 없이 지내야겠다」와 「지낼 필요가 없다」는 農學部가 各已 21.1%로 약간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 만 하다.

21) 洪承稷, 韓國大學生의 價値觀書, 前揭書, PP. 65~66.

22) 洪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前揭書, PP. 87~89.

E. 異性 및 結婚觀

19) 異性交際의 有無

青年期는 異性에 對한 興味를 넓히는 時期다. 愛情이 對象이 年令에 따라 勿論 다르긴 하지만, 生理的 成熟과 더불어 異性에 接近하려는 欲求가 強하다. 그런데, 異性에 接近하려는 극히 自然스럽고 正常的인 欲求가 오늘날 中等學校가 上級學校 進學準備에 沒頭하는 現實情에서 어느 程度로 異性交際에 發現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이런 뜻에서 「現在 당신은 異性交際를 하고 있습니까」하고 質問한 바, 다음 <表E-19> 와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표E-19>

異性 交際의 有無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하고 있다 | 20.3 | 29.8 | 40.0 | 27.1 |
| 하고있지 않다 | 68.6 | 64.9 | 60.0 | 65.7 |
| 무 응 답 | 11.1 | 5.3 | — | 7.1 |
| N | 153 | 57 | 70 | 280 |

<表E-19> 에 依하면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다」는 學生이 「하고 있다」는 學生보다 38.6%나 많은 比率를 보이고 있다. 즉,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다」는 學生은 全體의 65.7%로서 6割이 넘는데, 184名이다. 「하고 있다」는 學生은 全體의 27.1%로서 76名이다.

果然 現在 中等學校가 教科目中心·上級學校 進學準備에만 學校時間의 大部分을 보내고 있다면, 여기에 問題가 있다. 教育은 全人의 人間을 育成함을 그 目標로 한다. 人間은 한 領域에서 일어나는 不滿感을 다른 領域에서 滿足시키려는 傾向은 극히 自然스러운 現象이다. 發達段階에 알맞는 性教育(Sex Education)을 받지 않은 學生들이 比較的 自由時間이 많고 또 男女共學이라는 大學社會에 入學할 때, 어느 程度로 異性에 健全하게 適應할런지는 今後의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異性에 對한 健全한 知識과 態度를 기르고, 에티켓을 배우고, 나아가 그들도 어차피 成熟한 人間으로서 幸福한 家庭을 建設할 수 있기 위해서는 發達課業(Developmental Task)上 바람직한 異性觀·結婚觀을 가질 수 있도록 健全한 卍클活動 및 課外活動의 獎勵를 勸獎하는 바이다.

學部別로 보면 「異性交際를 하고 있다」는 學部는 水產學部(40%)가 越等히 높고, 다음이 農學部(29.8%)다. 前者의 境遇 陸地部 學生이 大部分인데, 本道보다 時代의 影響을 더 많이 받은 結果인지도 모른다. 反面, 「하고 있지 않다」는 異性交際를 하는 學生이 적은 法文學部가 68.6%로 가장 많고, 다음이 農學部(14.9%)이다.

20) 大學生活中 異性交際의 必要性

前述한 바와 같이 빈틈없이 짜여진 高等學校 生活中서 比較的 自律性이 높고 自由時間이 많고 男女共學이라는 새로운 大學社會에 入學한 學生들이 果然「大學生活中에 異性交際의 必要性을 느끼니까」하고 質問했던 바, 다음과 같은 <表E-20>의 應答結果를 얻었다.

<표E-20> 異性交際의 필요성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꼭 必要하다 | 11.1 | 12.3 | 27.1 | 15.3 |
| 어느 정도 必要하다 | 79.1 | 84.2 | 67.1 | 77.1 |
| 필요 없다 | 3.9 | — | 2.9 | 2.9 |
| 기 타 | 1.3 | — | — | 0.6 |
| 무 응 답 | 4.6 | 3.5 | 2.9 | 3.9 |
| N | 153 | 57 | 70 | 280 |

<表E-20>에 依하면 「어느 程度 必要하다」가 77.1%로 首位를 차지하고, 「꼭 必要하다」가 15.3%로 다음인 것으로 보아, 「어느 程度 必要하다」와 「꼭 必要하다」를 합치면 92.4%의 絶對多數의 學生들은 大學生活中에 異性交際가 必要하다고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있다. 反面 否定的으로 생각하는 學生은 겨우 2.9%에 不過하다.

위의 結果에서 우리는 어떻게 解釋할 수 있을까. 女性과 男性이 接觸하고 사귀는 가운데 各己의 性에 特有한 異質的인 特徵을 發見한다든가, 그 心理的인 相異, 社會的인 役割(Social Role)의 差異와 分擔을 알게 된다든가, 또 이 時期는 交際對象을 特定한 한 사람에 局限한 것이 아니라, 交際範圍를 넓혀서 才能과 趣向이 各己 다른 여러 異性들과 사귀어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해서 서로의 知的·情緒的 成熟을 刺戟하고, 共同關心事에 協力할 줄 아는 社會人으로서의 資質을 키워주며, 異性을 理解하고 尊重할 수 있게 하고, 異性에 對한 지나친 敵對感이나 恐怖感을 갖지 않게 해주는데 異性交際의 참다운 意義가 있는 것이다.²³⁾ 이러한 바람직한 經驗을 얻는 일이야 말로 앞으로 健全한 異性觀·結婚觀을 獲得하고 행복한 結婚生活을 營爲하리라 믿어 疑心치 않는다.

Hall에 依하면 戰爭동안에 急하게 서둘러 結婚한 많은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불행한 結婚生活을 하고 있으며, 또 離婚率도 높다고 그의 調査結果를 報告하고 있다.²⁴⁾

사귀이는 理想的인 期間을 簡單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一般的으로 짧은 것 보다는 時間的인 餘裕가 있는 便이 훨씬 有利하다고 한다. Cottrell과 Burgess는 사귀이는 期間과

23) 서 봉연, 性教育의 指導要領(學生指導論叢), 中央學生指導研究所, 1970, PP. 55~61.

24) Hall, C., The Instability of post-war Marriag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34, PP. 523~530.

행복한 結婚과는 아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2·3年동안의 交際期間을 두는 것이 淸爽하다 하고 한다.²⁵⁾

交際하는 期間은 서로 앞날의 配偶者를 理解하고 評價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된다. 이 期間을 利用하여 相對使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親舊 그리고 家族등을 잘 사귀일 機會를 가지게 되어 서로가 確信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學部別로 보면 水産學部(27.1%)가 他 學部보다 大學生活中의 異性交際가 「꼭 必要하다」고 보는 學生이 越等히 많은 反面, 「어느 程度 必要하다」고 보는 學生은 農學部(84.2%), 法文學部(79.1%)의 順이다.

21) 異性交際를 하는 理由

이러 밝힌 바와 같이 學生들이 大學生活中 어느 程度 異性交際가 必要함을 強調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萬若 당신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다면 어떤 理由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본 應答結果가 다음 <表E-21> 과 같다.

<표E-21>

異性交際를 하는 理由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 4.6 | 1.8 | 1.4 | 3.2 |
| 결혼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 | 4.6 | 7.0 | 8.6 | 6.2 |
| 이성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 66.0 | 70.2 | 68.6 | 67.5 |
|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 7.8 | 15.8 | 12.9 | 10.7 |
| 기 타 | 2.6 | 1.8 | 1.4 | 2.1 |
| 무 응 답 | 14.4 | 3.5 | 7.1 | 10.4 |
| N | 153 | 57 | 70 | 280 |

<表E-21> 에 依하면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理由는 「異성에 對한 見解를 넓히기 위하여」가 67.5%로 首位를 차지하고, 「生活을 즐기기 위해서」가 10.7%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大學生活中의 異性交際는 結婚對象者를 選擇하는 理由에서 보다는, 前述한 바와 같이 폭넓은 異性交際를 통해서 異성에 對한 見解를 넓힘으로서 앞으로의 結婚에 즈음하여 理想的인 配偶者를 選定하는데 健全한 態度를 지니려는데 그 一次的인 目的이 있는 同時에 過去와는 달리 異성은 그리 距離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親舊로서 생각하여 폭넓은 交際와 부드러운 關係를 맺으면서 大學生活를 즐겁게 多樣하게 하기 위한데 그 2次的인 目的이 있는 것 같다. 健全한 態度다.

그 밖에 「異성에 對한 好奇心」 「結婚對象者를 고르기 위해서」의 理由는 別로 異性交際의 理

25) Burgess, and Cottrell, L.,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 Y. 1936, P. 166.

由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別差가 없지만, 異性交際가 어느 程度 必要하다는 反應이 높은 農學部가 亦是 異性交際를 하는 理由로서 「異性에 對한 見解를 넓히기 위해서」 70.2%로 重視하고 있고, 다음이 水産學部(68.6%)이다.

22)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

다음에는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어 본 結果는 <表E-22>와 같다.

<표E-22>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지장을 가져온다 | 22.9 | 15.8 | 11.4 | 18.6 |
| 도움을 가져온다 | 19.0 | 22.8 | 27.1 | 21.8 |
| 별 영향이 없다 | 47.1 | 52.6 | 48.6 | 48.6 |
| 기 타 | 1.3 | — | 2.9 | 1.4 |
| 무 응 답 | 9.8 | 8.8 | 10.0 | 9.6 |
| N | 153 | 57 | 70 | 280 |

<表E-22>에 依하면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 「別 影響이 없다」가 48.6%로 으뜸이고, 다음이 「도움을 가져온다」가 21.8%, 그리고 「支障을 가져온다」가 18.6%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結果는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은 別로 없으며, 「支障을 가져온다」는 比率에 比하여서는 「도움을 가져온다」가 약간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갓 入學한 學生들이 앞으로 大學에서 學究的인 것을 追求함으로써 어느 程度의 功過가 있을런지는 今後의 課題임과 同時에, 이처럼 異性交際가 個人에게 주는 影響이 가지각색인 것은 異性交際의 方法과 個人의 事情에 따라 미치는 影響이 다른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가지 生活에 偏重됨이 없이 다른 活動과의 均衡과 調和를 이루기 위한 立場에서 學業生活에 支障없이 異性交友를 順調롭게 할 수 있는 姿勢가 바람직한 일이다.

學部別로 보면 異性交際가 學業에 「支障을 가져온다」는 反應은 法文學部(22.9%)가 높고, 「도움을 가져온다」는 水産學部(27.1%)가 높은 反面, 「別 影響이 없다」는 農學部(52.6%)가 높은 편이다.

23)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

韓國社會는 過去 李朝時代에 身分制度가 大端히 嚴重했으며, 크게 分類해서 兩班, 中庶, 常人, 賤人의 四階級이 있었다. 이 階級들간의 差別은 極甚하였으며, 階級이 同一하지 않으면 結

婚은 勿論 許容되지 않았다. 이와같은 身分社會가 長期間 韓國에 存續하였기 때문에, 韓國人間에는 身分認識이 大端히 強하게 扶植된 印象을 준다. 李朝社會가 崩壞되고 日帝 36年을 거쳐 解放後 28年을 겪는 동안에 韓國社會에서는 過去의 身分制度는 그 原型대로는 찾아볼 수 없고 兩班이라면 單純히 李朝時代의 士大夫階級の 後孫이나 新興 富裕層 및 權力層에 屬하는 家族까지 包含하는 意味變容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結婚問題에 들어가서는 班常關係를 따지는 傾向이 있음을 전혀 否定할 수 없다.²⁶⁾ 이 問題에 答하고져 「당신은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바, 그 應答結果는 <表E-23> 과 같다.

<표E-23> 配偶者 選擇의 基本조건

| 항 목 | | 구 분 | 法 | 農 | 水 | 全 體 |
|-----|-------|-----|------|------|------|------|
| 교 | 양 | | 25.5 | 36.8 | 37.1 | 30.7 |
| 애 | 정 | | 11.8 | 28.1 | 21.4 | 17.5 |
| 건 | 강 | | 13.7 | 5.3 | 10.0 | 11.1 |
| 성 | 격(인성) | | 35.9 | 17.5 | 21.4 | 28.6 |
| 용 | 모 | | 5.2 | 7.0 | 5.7 | 5.7 |
| 가 | 문 | | 0.7 | | 2.9 | 1.1 |
| 학 | 력 | | 2.0 | 5.3 | 1.4 | 2.5 |
| 무 | 응 답 | | 5.2 | | | 2.9 |
| | N | | 153 | 57 | 70 | 203 |

<表E-23> 에 依하면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으로서 「教養」(30.7%)에 첫째의 比重을 두고 있고, 다음이 性格(人性)(28.6%)에 두번째의 比重을 두고, 「愛情」(17.5%)에 세번째로 比重을 두고, 「健康」(11.1%)을 네번째로 들고 있다.

「容貌」 「家門」 「學歷」등은 別로 問題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果를 어떻게 解釋할 수 있을까? 먼저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으로서 「教養」을 첫째로 들고 있는데, 참된 사랑은 肉体와 精神의 合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것에 過不及이 없이 Balance가 取해질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欲求를 優先적으로 充足시키려고 하는가는 個人이나 社會에 따라서 勿論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人間像은 보다 더 높은 次元의 欲求의 成就에서 可能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知性人과의 對話의 廣場을 가질 수 있고, 異性과의 多方面에서 適應을 할 수 있고, 보다 積極적이고 建設的인 生活을 營爲할 수 있기 위해서는 當然 教養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人性」에 두번째로 比重을 두고 있다. 人間의 人性이란 問題는 簡單히 說明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便宜上 이 곳에서는 個人的 價値觀·目標(野望) 그리고 態度등으로 나누어서 생각

26) 洪承稷,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前掲書.

해본다.²⁷⁾

個人的 價値나 目標은 그의 人生方向을 提示해 주는 것이다. 配偶者 選擇을 위하여 사귀이는 두 사람은 서로 相對便의 價値觀과 目標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것이 適合하느냐 또는 兩立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價値나 目標가 비슷하거나 兩立할 수 있는 境遇는 아무런 問題가 없겠지만, 萬若케 그렇지 못할 때에는 相對便의 目標을 理解해 주고 밀어줄 수 있는가를 또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 쪽이 重要視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안 配偶者가 그 일에 對해 無關心 나아가서는 敵對視까지 나타낸다고 할 것 같으면, 結婚을 해도 거의 成功할 可能性은 없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宗教的인 問題, 政治的인 問題, 그리고 一般的인 趣味에서의 基本的인 差異도 커다란 葛藤을 일으킬 수 있는 要因이 된다.

結婚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그들이 이룩할 家庭生活에 對한 서로의 期待 또는 態度등에 對해서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新婚家庭을 꾸밀 場所를 決定할 때 부모를 모실 것인가의 與否에 기를 願하는가, 願한다면 몇 사람 程度, 食糧가 必要한가, 그리고 女子도 職業을 가져야 할 것인가 등 많은 問題에 對해 充分하고 仔細한 討議를 함으로써 統一된 態度에서 成功의 可能性은 높다 아니할 수 없다.

人性的 問題에서 또하나 생각해야 할 重要한 것은, 情緒的 成熟(Emotional Maturity)의 問題다. 비록 身體的으로는 어른이지만, 情緒의 面에서는 어린이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은, 結婚에서 失敗할 可能性이 많다. 지나치게 남을 依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남을 支配해야만 마음이 시원하거나, 제멋대로 해야만 滿足스러운 사람, 氣分이 자주 變하는 이른바 “氣分派”의 사람 등 모두가 情緒的으로 成熟되지 못한 것이다.

愛情(Affection)에 세번째로 그 比重을 들고 있다. 배우자 選擇의 成功 與否를 決定지킬 주는 하나의 條件은 배우자가 될 두 사람 사이에 어느 程度의 情緒的 結合(愛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²⁸⁾ 즉 배우자 選擇에서 무엇보다 첫째로 따져야 할 問題는 決定짓기 위하여 사귀이는 동안에 믿을 만한 情緒的 結合이 이룩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決定을 서둘러서도 아니며, 또 周圍의 影響에서도 될 수 있는데로 벗어나 可能한 限 交際期間을 오랫동안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배우자 選擇의 問題가 當事者인 個人的 일이라기 보다는 家族 全體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 나라의 文化에서는 配偶者를 決定지을 때 情緒的 結合이란 問題를 생각하기에 앞서, 도리혀 二次的인 旣 問題들을 重要하게 여겨 뒷날 後悔할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

네번째로 健康(Health)을 重視하고 있다.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에 깃든다”는 로마의 格言은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나 適用되는 말이다. 健康한 夫婦間에는 健康한 第二世를 맞이

27) 金在恩·黃應淵 外三人, 心理學概論, 서울: 載東文化社, 1935, PP. 269~271.

28) 金在恩·黃應淵 外四人, 心理學概論, 前掲書, P. 269.

할 確率이 높은 바, 이 또한 健全한 態度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學部別로 보면 配偶者 選擇의 條件으로서 水産學部(37.1%)·農學部(36.8%)는 「教養」을 더욱 重視하는 反面, 法文學部(35.9%)는 「人論」을 他學部보다 越亭히 重視하는 傾向을 보인다 또한 農學部(28.1%)는 愛情을 重視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24) 結婚 相對者의 選擇權

過去에 韓國이 歐美的 影響을 받지 않았던 李朝時代는 勿論 그러하였거니와, 現在에도 一部에서는 結婚當事者의 意思는 全然 考慮하지 않고 부모의 意思에 따라 仲媒人을 通려서 定婚이 되었다. 新入生들의 이 結婚 相對者의 選擇權 問題에 關한 態度를 把握하고자 「結婚은 어떤 方法에 依해서 定婚하는 것이 좋습니까」하고 質問하였던 바, <表E-24> 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표E-24> 結婚 相對者 選擇權의 所在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부모가 선택한다 | 2.0 | — | — | 1.1 |
| 당사자가 선택한다 | 8.5 | 17.5 | 12.9 | 11.4 |
| 부 모 공 | 10.5 | 10.5 | 12.9 | 11.1 |
| 당사자 동 | | | | |
| 기 타 | 0.7 | — | 1.4 | 0.7 |
| 무 응 답 | 5.2 | 1.8 | 1.4 | 3.6 |
| N | 153 | 57 | 70 | 280 |

<表E-24> 에 依하면 「當事者가 定하고 父母와 相議한다」가 72.1%로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다음이 「當事者가 選擇한다」가 11.4%, 그리고 「父母가 定하고 當事者와 相議한다」가 11.1%로 나타났다.

新入生들은 겨우 1%가 「父母가 選擇한다」고 應答한 것을보면, 歐美的 新結婚觀이 얼마나 現代韓國에 浸透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父母와 當事者가 共同으로 選擇한다」가 83.2%라는 點에 미루어 或者는 新入生들은 보수적이라고 結論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83.2%를 다시 分析하여 보면 「當事者가 定하고 父母와 相議한다」가 72.1%로서 이들의 大部分이 相當히 進步的임을 알 수 있다. 「父母가 選擇한다」의 1%와 「父母가 定하고 當事者와 相議한다」의 11.1%를 除外하면, 絶對多數의 學生들(83.5%)이 結婚相對者의 選擇에 있어서 歐美的 自由結婚觀을 받아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在 韓國에서는 아직도 男女間의 交際를 自由롭게 許容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므로 學生들의 結婚相對者 選擇의 理想과 現實과의 사이에 相當한 距離가 있을 줄로 믿는다. 이 新入生들의 몇 %가 果然 自由結婚을 實現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今後의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學部別로 보면 結婚相對者의 選擇에 있어서 農學部(87.7%) (當事者가 選擇한다 17.5%, 當事者가 定하고 父母와 相議한다 70.2%) 學生들이 第一 進步的이고, 다음이 水産學部 學生(84.3%)들이다. 反面에 法文學部 學生(81.7%)들이 他 學部보다 조금 保守적 傾向을 띠고 있음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結果로 미루어 볼 때 農·水産學部の 學生들이 陸地部 學生이 많다는 것을 勘案할 때, 地域的인 特性에서 여기의 學生은 現代의 影響을 덜 받은 結果인지도 모른다.

結論的으로, 于先 結婚相對者를 選擇함에 있어서 個人主義가 支配하는 美國과 같은 先進國에서는 거의 누구나가 「當事者의 일」이라고 應答할 것이고, 또 儒敎가 支配했던 過去의 韓國에서는 거의 누구나가 「父母의 일」이라고 應答했을 것이라는 兩假定에 비추어 新入生들의 結婚 對象者 選擇에 對한 態度를 分析해 보면, 確實히 韓國社會의 儒敎的 傳統은 歐美의 方向으로 變質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家族觀의 健全한 變化는 그 社會全體의 變化와 並行 내지 一致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다른 社會諸條件은 別般 變化가 없는데 어느 한 面에 對한 觀念만 高度로 變化하면, 必然코 行動 및 精神面에 불균형을 體驗하게 된다.²⁹⁾

25) 配偶者의 學歷

同等한 教育程度가 행복한 結婚의 條件이다. 그러나 過去에는 當事者끼리의 教育程度를 無視하고, 부모의 立場에서 當事者가 되어 家門·양친한 女子 및 男子를 擇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러한 影響下의 부모들에서 成長해온 新入生들이 어느 程度로 이 傳統을 變換시켰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당신이 願하는 배우자의 學歷은 무엇입니까」하고 質問했던 바, 그 應答結果는 <表E-25> 와 같다.

<표E-25> 원하는 配偶者의 學歷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體 |
| 대학교 졸업 | 45.1 | 26.3 | 28.6 | 37.1 |
| 고등학교 졸업 | 31.4 | 57.9 | 51.4 | 41.8 |
| 중학교 졸업 | 1.3 | — | 1.4 | 1.1 |
| 국민학교 졸업 | 2.0 | — | 1.4 | 1.4 |
| 학력에 무관 | 14.4 | 14.0 | 17.1 | 15.0 |
| 무 응 답 | 5.9 | 1.8 | — | 3.6 |
| N | 153 | 57 | 70 | 280 |

<表-E 25> 에 依하면 新入生들이 願하는 배우자의 學歷은 「高校卒業」이 41.8%로 제일 比率이 높고, 다음이 「大卒」이 37.1%로 나타나고 있는 反面에, 「中卒」·「國卒」은 配偶者의 學

29) 洪 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74~76.

歷으로서 別로 重視되지 않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위의 結果에서 우리는 어떤 解釋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一般的으로 男子들은 그들보다 덜 教育받은 사람을 아내로 맞는 傾向이 있으며, 한편 教育을 많이 받은 男子들은 평균 以上の 教育을 받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 같다. 그리고 女子들은 教育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보다 뛰어난 教育을 받은 男子들과 結婚하는 傾向을 보여준다. 이런 点에서 볼 때 新入生들의 8割 가량은 同等한 또는 덜한 學歷의 배우자를 願하는 것을 意味하는 바, 이 事實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夫婦의 教育程度가 지나치게 差異를 보여주면, 행복한 結婚을 할 機會를 어느 程度 威脅當할 可能性을 엿볼 수가 있다. 이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教育程度 그것이 直接的으로 問題가 된 다기 보다는, 教育의 影響을 받은 두 사람의 興味·態度 그밖에 여러 特徵의 差에서 問題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³⁰⁾

「學歷에 無關」한 學生도 15%가 되는데, 一時的인 感情에서 맺어진 人緣이 오래 갈런지, 또 그들의 知性을 어떻게 昇華(Sublimation) 및 補償(Compensation)할런지는 앞으로 좋은 研究課題가 될 줄 믿는다.

學部別로 보면 배우자의 學歷으로 「大卒」에 比重을 두는 學生들은 法文學部 學生(45.1%)들이 他 學部 보다 越等히 많고, 「高卒」을 重視하는 學部는 農學部(57.9%), 水產學部(51.4%) 順位이다.

綜合的으로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은 <表E-23>에서 「教養」을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으로 제일 첫째의 比重을 두는 것으로 보아, 知性人과의 對話의 廣場을 가지려면 最少限度 高校程度의 學歷을 必要로 하고 있음을 立證해 주고 있고, 過去에 絕對視되었던 兩班의 權威가 오늘날은 實質的으로 무너졌고 또 生存競爭이 甚한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家門에 만 依存할 수 없다는 認識이 國民間에 깊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은 사위를 고를 때 重要視하는 것은 資格의 決定要因인 教育과 性格인 것이다³¹⁾ 라는 事實과 一脈相通된다고 할 수 있다.

F. 宗 教 觀

26) 現在 갖고 있는 宗教

韓國은 宗教的으로 過去 千餘年間만을 보더라도 多元的인 길을 걸어왔다고 본다. 高麗 五百年間은 佛敎가 國敎로 行勢하였고, 李朝 五百年間은 유교가 支配的인 倫理 道德律로서 韓國人의 精神生活을 支配하였다. 그리고 韓國이 19世紀末부터 開化되기 始作한 以後로는 基督教가 들어와서 普及되었으며, 特히 1945年 解放以後로는 美國의 影響下에 基督教는 相當한 勢力을

30) 金 在恩·黃 應淵 外 3人, 心理學概論, 前揭書, P. 275.

31) 崔 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서울: 民潮社, 1965, 第一章 3節 婦女子의 地位 參照.

全國的으로 扶植시켰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어떤 一定한 宗教가 主要 宗教로서 國家的으로 勸獎을 받고 있지 않으며, 또 어떤 特殊宗教가 全國的으로 得勢하여 宗教的 壓力을 國民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宗教에 關한 限, 韓國은 極히 自由로운 位置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²⁾ 이와같은 狀況에 있는 韓國에서 成長 發達하고 있는 新入生들은 어떤 宗教를 보다 價値있게 생각 하며, 또 갖고 있는가를 把握하는 것은 여러모로 意義가 있다고 본다. 이런 뜻에서 당신은 宗教를 갖고 있다면 어떤 宗教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質問한 바, <表F-26> 와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表F-26>

宗 教 的 有 無

| 항 목 | | 구 분 |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불 | 교 | 24.8 | 31.6 | 30.0 | 27.1 |
| 유 | 교 | 3.3 | 1.8 | 2.9 | 2.9 |
| 천 | 도 | 0.7 | 3.5 | 1.4 | 1.4 |
| 기 | 독 교(신교) | 12.4 | 12.3 | 14.3 | 12.9 |
| 천 | 주 교 | 11.1 | 10.5 | 10.0 | 10.7 |
| 기 | 타 | 2.6 | 3.5 | 4.3 | 3.2 |
| 무 | 응 답 | 45.1 | 38.6 | 37.1 | 41.8 |
| N | | 153 | 57 | 70 | 280 |

<表F-26> 에 依하면 全 調査對象者의 280名 學生中 「其他」를 除外한 55%인 154名이 宗教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41.8%인 117名이 非宗教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宗教人이 非宗教人보다 13.2%나 높은 37名이 더 많다.

學部別로 보면 農學部가 宗教를 가진 學生이 59.7%로 으뜸이고, 다음이 水産學部58.6%, 그리고 法文學部 52.3%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다.

宗教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亦是 韓國의 傳統的인 佛敎과 유교가 基督敎(新敎 및 天主敎)에 比해서 相當히 強勢를 보이고 있다. 즉 勿論 佛敎가 가장 比率이 높지만, 佛敎(27.1%)와 유교(2.9%)를 合하면 30%이며, 基督敎는 新敎(12.9%)와 舊敎(天主敎)(10.7%)를 合하면 23.6%이다. 이러한 結果는 濟州道는 섬(島)이라는 地理的 立地的 條件때문에 都市에 比해서 基督敎의 影響이 그다지 미치지 못하였다는 좋은 證左일런지 모른다. 또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天道敎가 어느 宗教보다도 應答率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1.4%) 韓國의 土着的인 新興宗教가 이와같이 本道에서 勢力을 얻고 있지 못함은 어디에 起因하는 것인지는 좋은 研究課題라 하겠다.

學部別로 보아도 亦是 韓國의 傳統的인 佛敎를 갖고 있는 學部가 많지만, 農·水産學部의 學

32) 洪承稷,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152~153.

生들이 韓國의 傳統的인 宗教를 많이 갖고, 基督教은 三個學部 모두 그 比率이 비슷하다. 즉 法文學部의 境遇를 보면 佛教(24.8%)와 유교(3.3%)를 합치면 28.1%이며, 基督教은 新教(12.4%)와 天主教(11.1%)를 합치면 23.5%이다. 反面 農學部는 佛教와 유교를 합하면 33.4%, 基督教은 22.8%이며, 水産學部는 佛教와 유교를 합해서 32.9%, 基督教은 24.3%이다.

以上の 結果에서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宗教를 自己의 宗教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韓國의 傳統的인 佛教가 가장 優勢한 宗教로서 君臨하고 있고, 그들에게 影響을 줄 可能性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地域社會發展 나아가서 國家發展에 對한 責任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다.

27) 人生觀樹立에 있어서의 宗教의 信仰의 필요성 여부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韓國에는 8·15解放 以後 宗教에 對한 自由가 無制限 許容됨에 따라 많은 宗教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도 불교도 過去 李朝나 高麗朝에 누렸던 그런 絶對的이고 聖스러운 位置를 喪失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며, 基督教도 土着化한 韓國宗教로서 看做되기에 아직 너무 弱勢인 것 같다. 或者是 韓國에는 歐美 諸國의 基督教, 中東 諸國의 回教, 印度의 「힌두」教, 猷太의 猶太教등과 같은 統一된 支配的인 宗教가 없기 때문에, 國民의 精神의 團合이 困難하다고 指摘하기도 한다.³³⁾ 이와같은 韓國의 風土에서 成長發達하고 있는 新入生들은 宗教의 信仰과 教養의 必要性을 어느 程度 느끼고 있는가를 把握하고자 「당신은 完全히 成熟한 人生觀을 確立함에 있어서 宗教의 教養과 信仰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質問을 하여, 다음 <F-27> 과 같은 應答結果를 얻었다.

<표F-27> 인생관 수립에 있어서 宗教의 信仰의 필요성여부

| 항 목 | 구 분 | | | |
|-------------|------|------|------|------|
| | 法 | 農 | 水 | 全 體 |
| 절대 필요하다 | 17.6 | 24.6 | 20.0 | 19.6 |
| 어느 정도 필요하다 | 63.4 | 59.6 | 62.9 | 62.5 |
| 있으나 마나 하다 | 4.6 | — | — | 2.5 |
|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 5.9 | 10.5 | 10.0 | 7.9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6 | | 1.4 | 1.8 |
| 모르겠다 | 3.3 | 5.3 | 5.7 | 4.3 |
| 무 응 답 | 2.6 | — | — | 1.4 |
| N | 153 | 57 | 70 | 280 |

<表F-27>에 依하면 人生觀 樹立에 있어서 宗教의 教養과 信仰이 「어느 程度 必要하다」가 62.5%로 首位를 차지하고, 다음이 「絶對 必要하다」로 19.6%, 「그렇게 必要하지 않다」가 7.9% 「있으나 마나하다」가 2.5%, 「全혀 必要하지 않다」가 1.8%로 되어 있다.

33) 洪 承稷,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研究, 前揭書, P, 87.

「絶對 必要하다」고 應答한 學生과 「어느 程度 必要하다」고 應答한 學生을 合하면 82.1%의 絶對多數의 學生들이 宗教的 教養과 信仰이 完全한 人生觀 樹立에 必要하다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反面, 否定的인 範疇에 屬하는 應答欄은 「있으나 아니다」·「그렇게 必要하지 않다」·「全혀 必要하지 않다」인데, 合計된 應答率을 보면 12.2%로서 極히 낮은데, 이는 종교적 教養과 信仰을 否定的으로 생각하는 學生들의 反應이다. 이 結果를 「子女教訓」에 對한 反應結果〈表 D-14〉와 比較해 보면, 新入生들은 子女教訓에 있어서는 宗教·道義的 教育을 시키겠다는 學生의 比率이 3.2%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新入生들의 종교에 對한 態度가 어느 程度로 몸에 完全히 붙은 것인지 疑心하지 아니할 수 없다.

學部別로 宗教的 教養 및 信仰이 必要하다고 하는 肯定的인 應答을 보면, 農學部가 84.2%로 首位를 차지하고, 水産學部가 82.9%로 다음이고, 法文學部가 81%로 나타나고 있고, 否定的인 應答을 본다면 肯定的인 應答率이 적은 順位에 따라 法文學部 13.1%, 水産學部 11.4%, 農學部 10.5%로 되어 있다.

위의 結果에서 우리는 어떤 結論을 내릴 수 있을까? 韓國에는 어떤 特殊한 宗教가 獨自적으로 全國의인 勢力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國家的으로도 어떤 特殊宗教가 政府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韓國이 宗教적으로 이런 狀況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態度面에 있어서는 宗教가 決코 否定視 되거나 敵對視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것은 8割 以上の 應答者들이 完全히 成熟한 人生觀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宗教的인 教養과 信仰이 어느 程度 또는 絶對 必要하다고 應答한 데서 分明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學生들은 果然 實地로 어느 程度 宗教的 教養과 信仰을 重要視하고 있을까? 本 研究에 나타난 應答者들의 態度는 相當히 宗教에 肯定的인 面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곧 行動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肯定的인 것이라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態度調査의 妥當性에 關한 問題인데, 이것은 앞으로 別途로 研究해 보지 않고서는 容易하게 解決할 수 없다. 그러나 態度는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行動에 影響을 주는 것이 事實인 만큼, 위의 結果는 新入生들의 종교적 행동에 重要한 시사를 던져 주는 것이라 하겠다. 新入生의 態度가 종교에 對해서 肯定的인 것이라면, 앞으로 이들이 보다 健全한 宗教的 教養을 갖도록 學校當局에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勿論 이것은 어느 特定 宗教가 國教化 되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³⁴⁾

IV 結 論

1. 要 約

新入生의 價値觀 調査研究에서 밝혀진 主要事實들을 要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34) 洪 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 前掲書, PP. 152~154.

A. 人生觀에서 밝혀진 事實

(1) 現在 全体 調査對象者中 約 7割의 學生들은 人生을 「意味 있는 生存競爭의 場」·「즐거운 삶」이라는 樂觀的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3割은 「꿈같은 苦海의 連續」·「주어진 人生이니까 살아본다」는 悲觀的 否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다. <表A-1>

(2) 人生의 遠視的 目標로서 學生들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完全한 人格完成」(40.4%)을 願하고, 둘째로 「幸福한 家庭生活」(22.5%)을 바라고, 셋째로 「國家民族의 向上發展」·「좋은 職業」(7.9%)을 갖겠다는 것이다. <表A-2>

(3) 8割 가량의 學生들은 첫째 「計劃이 實現되었을 때」(49.3%), 둘째 「家庭生活가 즐거울 때」(23.2%), 셋째 異性·親舊와의 關係가 圓滿할 때(17.1%)에 幸福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表A-3>

(4) 7割 가량의 學生들이 가장 不安을 느끼는 것으로서 「將來問題」(就職問題)(26.4%)와 「國家의 政治的·社會的 問題」(17.9%) 및 「家庭問題」(13.6%)와 「親舊·異性問題」(10.4%)에 두고 있다. <表A-4>

B. 大學觀에서 밝혀진 事實

(1) 學生들은 大學의 性格에 對하여 첫째 「教養을 쌓는 場所」(35.4%), 둘째 「學問을 研究하는 곳」(32.1%), 셋째 「親舊들과 좋은 人間關係를 맺는 곳」(10.4%)이라고 들고 있다. <表B-5>

(2) 學生들이 가장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教授는 첫째 「學究的 指導力이 있는 教授」(41.4%) 둘째 「對人關係가 좋은 教授」(22.1%), 셋째 「學生들을 個人的으로 誠意껏 對하여주는 教授」(19.6%)라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表B-6>

(3) 學生들이 學校生活中 느끼고 있는 不滿點으로서 두가지를 뚜렷하게 들고 있다. 첫째 「좋은 施設이 없다」(37.9%), 둘째 「캠퍼스가 市와 西歸浦로 分散되어 있다」(28.6%)이다. <表B-7>

(4) 學生들은 休講이나 休息時間에는 「休息을 取한다」(39.6%) 및 「圖書館에 간다」(39.3%)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現象이다. <表B-8>

C. 職業觀에서 밝혀진 事實

(1) 54%의 學生들은 卒業後에 職業을 갖기를 願하고 있고, 28%의 學生들은 大學院 進學을 바라고 있다. <表C-9>

(2) 學生들의 職業의 選擇은 첫째 「能力과 適性에 맞는 職業」(43.6%), 둘째 「獨創性을 발휘할 수 있는 職業」(22.9%), 셋째 「未來가 安定된 職業」(14.6%)을 選擇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表C-11>

(3) 그리고 學生들이 제일 많이 願하는 職業은 「教師」(19.3%)이고, 다음이 「學者」(教授13.2)이고, 그 다음이 「事業家」(經營主)(12.1%) 및 「航海士」(海運業)(11.1%)이다. <表C-10>

(4) 44%의 學生들은 女性의 職業進出에 對하여 積極的 肯定的인 意思表示를 보이고, 나머지 56% 程度의 學生들은 消極的 否定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表C-12>

D. 家政觀에서 밝혀진 事實

(1) 學生들의 將來에 對한 부모들의 所願은 「뚜렷한 職業을 갖게 하는 것」(50.7%)과 「부모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이루는데」(33.2%)에 있다. <表D-13>

(2) 學生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子女는 「個人的 獨立精神· 강한 信念」(40%)을 지닌 「圓滿한 性品の 人格을 갖춘 人間」(29.3%)으로 되길 願하고 있다. <表D-14>

(3) 家庭의 重要한 일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從來의 父母中心에서 「家族이 모두 議論」(65%)해서 決定하는, 이른바 民主的 方式을 重視하고 있다. <表D-15>

(4) 大部分의 學生들은 「아들과 딸을 同等하게 보고 있으나」(69.6%), 「男尊女卑의 思想」(22.5%)을 지닌 學生도 相當數나 된다. <表D-16>

(5) 大多數의 學生들은 그들의 理想的인 子女數로서 「二男 一女」(51.8%), 「一男 一女」(21.8%), 「二男 二女」(14.3%)의 順位를 나타내주고 있다. <表D-17>

(6) 奉祭祀는 「祖上崇拜의 思想으로 家庭의 和睦上 必要하다」(55.7%)와 「慣習上 傳統的인 因習으로 因해 어쩔 수 없다」(18.6%)는 것으로 보아, 亦是 아직도 傳統的· 慣習的인 面이 남아 있다. <表D-18>

E. 異性 및 結婚觀에서 밝혀진 事實

(1) 全体的으로 보아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는 學生」(65.7%)이 「하고 있는 學生」(27.1%)보다 越等히 많다. <表E-19>

(2) 在學中 異性交際가 「꼭 必要하다」 또는 「어느 程度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學生은 92% 程度이다. <表E-20>

그 理由로서는 「異性に 對한 見解를 넓히기 위한 것」(67.5%)이 그 原因을 이루고 있다. <表E-21>

(3) 異性交際가 學業에 「別 影響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보는 學生은 50% 程度이며, 「도움을 가져온다」와 「支障을 가져온다」고 보는 學生은 各各 20% 程度이다.

(4) 學生들의 배우자 選擇의 基本條件으로서는 「教養」(30.7%)과 「人性」(28.6%) 및 「愛情」(17.5%)에 重點을 두고 있다. <表E-23>

(5) 얼마되지 않은 過去에는 結婚相對者의 選擇은 當事者보다는 當事者의 부모가 이 問題를 主管하였으나, 그러나 現在는 學生들의 1割 가량은 結婚相對者의 選擇은 부모의 介入없이 完全

히 「當事者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와 相議해서 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7割 以上이 于先 「當事者が 相對者를 決定한 然後에 부모와 相議하는 것」을 贊成하고 있다. <表E-24>

(6) 배우자의 學歷으로서 學生들의 41.8%는 「高校卒業」을, 37.1%는 「大卒」을 願하고 있다. <表E-25>

F. 宗教觀에서 밝혀진 事實

(1) 現在學生들의 55%는 宗教를 갖고 있고, 나머지 41.8%는 宗教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韓國의 傳統的인 宗教(30%) (佛敎: 27.1%, 儒敎: 2.9%)가 基督教(23.6%) (新敎: 12.9% 舊敎: 10.7%) 보다 強勢를 보이고 있다. <表F-26>

(2) 學生들의 宗教에 對한 一般的인 態度는 好意的인 面이 있다. 즉, 完全히 成熟한 人生觀을 세우는데 宗教的 教養과 信仰이 「어느정도」(62.5%) 또는 「絕對 필요하다」(19.6%) 고 믿는 應答者들이 82%나 된다.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應答率은 全體의 1할정도이다. <表F-27>

2. 提 言

本 調査에서 밝혀진 事實을 根據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綜合的인 提言을 하고자 한다

A. 人生觀에서

1. 要約(A.1)에서 나타난 傾向을 上臺로 한다면 3分之1의 學生들이 否定的 悲觀的인 人生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人間에 對한 不信·社會에 對한 悲觀的 態度를 버리고 積極的이고 健全한 人生觀을 갖도록 指導할 必要가 있다.

2. 要約(A.2)에서 밝혀진 事實을 上臺로 하여 人生의 目標을 人格完成과 家庭生活에 두는 것으로 보아, 具體的으로 人格完成과 행복한 家庭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知識과 態度 및 技能을 獲得할 수 있도록 하는 指導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B. 大學觀에서

1. (B.1)에서의 事實을 基礎로 하여, 大學敎育은 폭넓은 教養을 쌓을 수 있고, 同時에 學問을 研究하는 場所로서의 機能을 발휘하여야 한다.

2. (B.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大學生活中 學生들이 느끼고 있는 不滿點은 좋은 施設이 없고, 캠퍼스가 市와 西歸浦로 分散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學校當局은 이와같은 面의 行政的인 支援은 勿論 全 敎職員도 너 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때 보다 一致團結하여 學生들이 하루 速히 統合된 캠퍼스에서의 좋은 施設에서 工夫할 수 있도록 總力을 傾注하는데 앞장 서야겠다.

3. (B.4)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休講이나 休息時間에 休息을 取하거나 圖書館에 간다는 學生이 各各 4割 程度인 바, 앞으로 學生들의 餘暇時間에 對한 敎授들의 適切한 指導는 勿論,

그들이 餘暇時間을 보람있게 活用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施設의 擴張 및 圖書館 利用이 促求된다.

C. 職業觀에서

1. (C.1)에서 아는 바와 같이 過半數의 學生들이 卒業後에 職業갓기를 願하고, 3割 가량은 大學院 進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卒業後의 職業計劃을 위한 教育的 職業的인 information을 많이 提供해 주어야 함은 勿論, 大學院 進學生들을 爲한 具體的인 指導方案도 아울러 摸索되어야 한다.

2. (C.3)에서 나타난 事實을 바탕으로 하여 보면 學生들이 제일 많이 願하는 職業은 教育界로의 進出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濟州大學은 그 地域發展을 위한 指導者로서의 教師養成을 위한 師範大學으로의 機能도 발휘할 段階라고 본다.

3. (C.4)에서 밝혀진 것을 基礎로 하여 보면, 56% 程度의 學生들이 女性의 職業進出에 對하여 消極的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人權尊重 및 自主性を 重視하는 民主的 思考方式에 符合될 뿐만 아니라, 男女 모두 能力에 따라 맡은 바 任務와 責任을 充實히 履行할 때 한국의 近代化는 더욱 加速化된다는 信念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D. 家政觀에서

1. (D.1)에서 밝혀진 傾向에서 學生들의 將來에 對한 부모들의 所願은 뚜렷한 職業을 갖게 하는 것과 부모가 이루지 못한 所願을 이루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먼저 이 職業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의 職業的인 適合性(vocational fitness)에 對한 理解와 직업에 대한 이해는 勿論, 兩者의 合理的이고 調和된 關聯性을 찾아서 그 統合을 이룰 수 있는 相談指導가 필요하다.

다음, 子女를 통한 所願成就是 自己의 失敗를 自己子女를 통해서 補償하려는 心理機制下에서 일어나는 수가 많은 바, 자칫하면 子女들의 能力과 希望 및 興味를 度外視하기 쉬운데서 그들에게 커다란 心的인 打擊을 주는 바 銘心할 필요가 있다.

2. (D.2)에서 밝혀진 事實에서 學生들이 생각하는 子女敎訓으로서 個人의 獨立精神·強한 信念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먼저 부모가 되기에 앞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在學時나 卒業後를 莫論하고 獨立의 精神을 갖고 自己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方向으로 自己自身에 充實하도록 獨立과 主体의 精神을 기르게 하는 일이 바로 自身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임을 自覺케 하는 일이다.³⁵⁾ 學生들에게 強力한 主体意識과 독립의 氣魄을 스스로 體得케 하고 行動할 수 있도록 그 精神을 促進시켜 주는 指導方案의 摸索이 필요하다.

35) 朴大善 編, 大學과 國家發展(韓國大學生의 主體意識과 現實參與의 問題點, 尹養林),

서울: 教育出版社, 1968, PP. 125~137.

3. (D. 6)에서 밝혀진 事實에서 大部分의 學生들은 奉祭祀에 對하여 祖上 崇拜의 思想으로 家庭의 화목상 필요하고, 또 慣習上 傳統의인 因習으로 因해 어쩔 수 없다 等 贊意를 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虛禮·虛飾과 經濟的 浪費를 막고 現時代에 맞게 是正되고 보다 合理的 立場에서 祭事를 再解釋하고 現代生活의 感情에 一致하는 方向으로 祭祀節次를 修正하는 것이 오늘날 要請되는 바, 家庭儀禮準則을 구현하기 爲한 善導方案이 보다 더 徹底히 이루어져야 한다.

E. 異性 및 結婚觀에서

1. (E. 2)에서 밝혀진 事實을 基盤으로 하여 보면 在學中 異性交際에 對하여 絶對多數의 學生들이 肯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學生들에게 健全한 方向으로 正常的인 異性觀을 가질 수 있는 教養講座는 勿論, 课外活動이나 研究會活動을 強化하여 健全한 勞働氣 속에서 知識과 思想을 交換할 수 있는 健全한 異性交際의 機會를 積極 마련해 줄 수 있는 教育的 指導가 切實히 要請된다.

2. (E. 4. 5. 6)에서 나타난 傾向을 中心으로 學生들이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 配偶者 選擇權 및 學歷에 至大한 關心을 갖고 있는 바, 앞으로 바람직한 異性觀 및 結婚觀을 確立하기 爲하여서는 家族關係學(論)은 勿論, 結婚論(人間關係論)을 教養科目으로 가르칠 必要가 있다.

F. 宗教觀에서

1. (F. 1. 2)에서 밝혀진 事實을 根本으로 하여 보면 過半數의 學生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8割 以上이 종교에 對한 態度가 肯定的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特定宗教를 超越하여 學生들이 보다 健全한 宗教的 素養을 갖고 個人的 修養은 勿論, 나아가 地域社會 및 國家社會發展에 奇與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한 教育的 指導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줄 안다.

參 考 文 獻

- (1) 洪 承稷, 韓國인의 價値觀 연구,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 (2) 洪 承稷, "韓國大學生的 價値觀" 「아시아연구」 第11卷, 서울: 高麗大學校 아시아問題연구소, 1963
- (3) 金 泰吉, 韓國大學生的 價値觀, 서울: 一潮閣, 1967.
- (4) 鄭 範謨, 價値觀과 教育, 서울: 培英社, 1972.
- (5) 尹 泰林, 韓國인의 性格,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0.
- (6) 尹 泰林,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서울: 玄岩社, 1971.
- (7) 韓國教育學會(編), 教育的 哲學的 理解, 서울: 培英社, 1971.
- (8) 朴 大善編, 大學과 國家發展, 서울: 教育出版社, 1968.
- (9) 社會開發, 서울: 保健社會部, 1968.

- (10) 學生活動, 「現代教育實踐叢書 9」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9.
- (11) 鄭寅錫, 青年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71.
- (12) 金在恩·黃應淵 外 3인, 心理學概論, 서울: 載東文化社, 1965.
- (13) 張秉琳·鄭漢澤, 心理學, 서울: 博英社, 1966.
- (14) 「學生生活研究」4號,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0.
- (15) 「연구報」第九輯, 釜山大學校 學生指導연구소, 1973.
- (16) 「學生指導연구」第1卷, 安東教育大學 學生指導연구소, 1973.
- (17) 「학생지도」第2輯, 濟州大學 學生指導연구소, 1972.
- (18) 서봉연, 性教育의 指導要領, 中央學生指導연구소, 1970.
- (19) 서봉연, 性교육과 性發達, 中央學生指導연구소, 1970.
- (20) 서울大 新入生들의 價値觀, 朝鮮日報, 1972年 1月 25日, (4).
- (21) 社會변천과 靑少年 價値觀, 朝鮮日報, 1972年 7月 25日, (4).
- (22) 社會安定과 家庭福祉, 朝鮮日報, 1972年 7月 9日, (5).
- (23) 價値觀 確立의 國民的 使命, 朝鮮日報, 1973年 2月 28日 (2).
- (24) 父母가 바라는 子女像, 朝鮮日報, 1973年 6月 28日 (5).
- (25) 高校生の 價値觀, 濟州新聞, 1972年 12月 4日 (4).
- (26) 現代生活과 靑少年 精神健康, 濟州新聞, 1973年
- (27) 바람직한 結婚, 濟州新聞, 1973年 12月 18日 (4)
- (28) 人生과 價値의 問題, 濟州新聞, 1973年 12月 21日 (4)